

양희은·강석우의 여성시대



CONTENTS

- 004 여성시대가 흐르는 곳
고기를 자르며
- 008 이달의 편지
나만을 위한 밥상 외
- 052 여성시대 가족을 찾아
이별하고 새 마음으로 맞는 새해
- 058 행복을 찾는 사람들
끊임없는 연구개발이 돋보이는
특수시력교정 전문안과
- 065 여성시대 꾸러미
가슴으로 낳은 아이 외
- 076 아버지의 육아일기
폰수 같은 아버지
- 079 성장보고서
아이들은 정말 자상한 아버지를 좋아할까?
- 082 부부클리닉
부부의 최고 선물, '네 마음을 녹여주마'
- 086 대중문화 산책
추억을 팔다
- 088 양희은의 스튜디오에서
여성시대와 함께하는 십년세월
- 090 강석우의 스튜디오에서
나에게 2009년은
- 092 홍PD의 창과 창 사이
그 해 겨울
- 094 요리보고 사연보고
추억의 음식 수제비
- 097 한 장의 생각
사소페라토의 <기도하는 동정녀 마리아>

양희은·강석우의

양희은·강석우의 여성시대입니다

진행_양희은, 강석우

프로듀서_안재주, 홍지은

방송_MBC라디오 매일 아침 9:10~11:00

MBC인터넷 www.imbc.com

방송중 열린전화_02-368-1500~3,

문의_02-789-1339

주소_(150-604) 서울 여의도우체국

사서함 400호 여성시대

표지_주명덕

2009.01 + January

여성시대/월간지/비매월/2009년 1월호 발행_2009년 1월 10일 발행인_(주)문화 방송 대표이사_엄기영 등록번호_라-5413 편집·제작_B&M 커뮤니케이션(02-2272-6046) ※본지는 한국 도서윤리 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기업은행 협찬의 월간 여성시대는 작지만 큰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일 10일 기업은행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이웃과 함께 보면 감동이 2배로 늘어납니다.

2009 + 01 + January

MBC 라디오 매일 아침 09:10~11:00

고기를 자르며

 강원 원주시의
하금란 씨를 찾아서

✿ 삭삭사삭. 고기를
발라내는 손이 유난히 섬세하다. 정
육점집 주인으로 자리매김한 지 10
년의 세월이 흘렀다. 스물아홉의 나
이에 시작한 일. 여린 손목으로 고
기를 발라냈는데 이젠 손목에 제법
힘이 들어간다. 무거운 고기를 자주
들어서인지 어깨가 아프기도 하다.
고기를 사러오는 분들에게 반갑게
웃어주고 좋은 부위를 추천하다보
니 단골손님이 꽤 된다. 서로의 속
내를 털어내는 손님들과의 수다시
간도 행복하다.
고기를 파는 중간중간 아이들을 챙
길 수 있어 좋다. 가게에 딸린 조그
만 방은 언제나 아이들의 소리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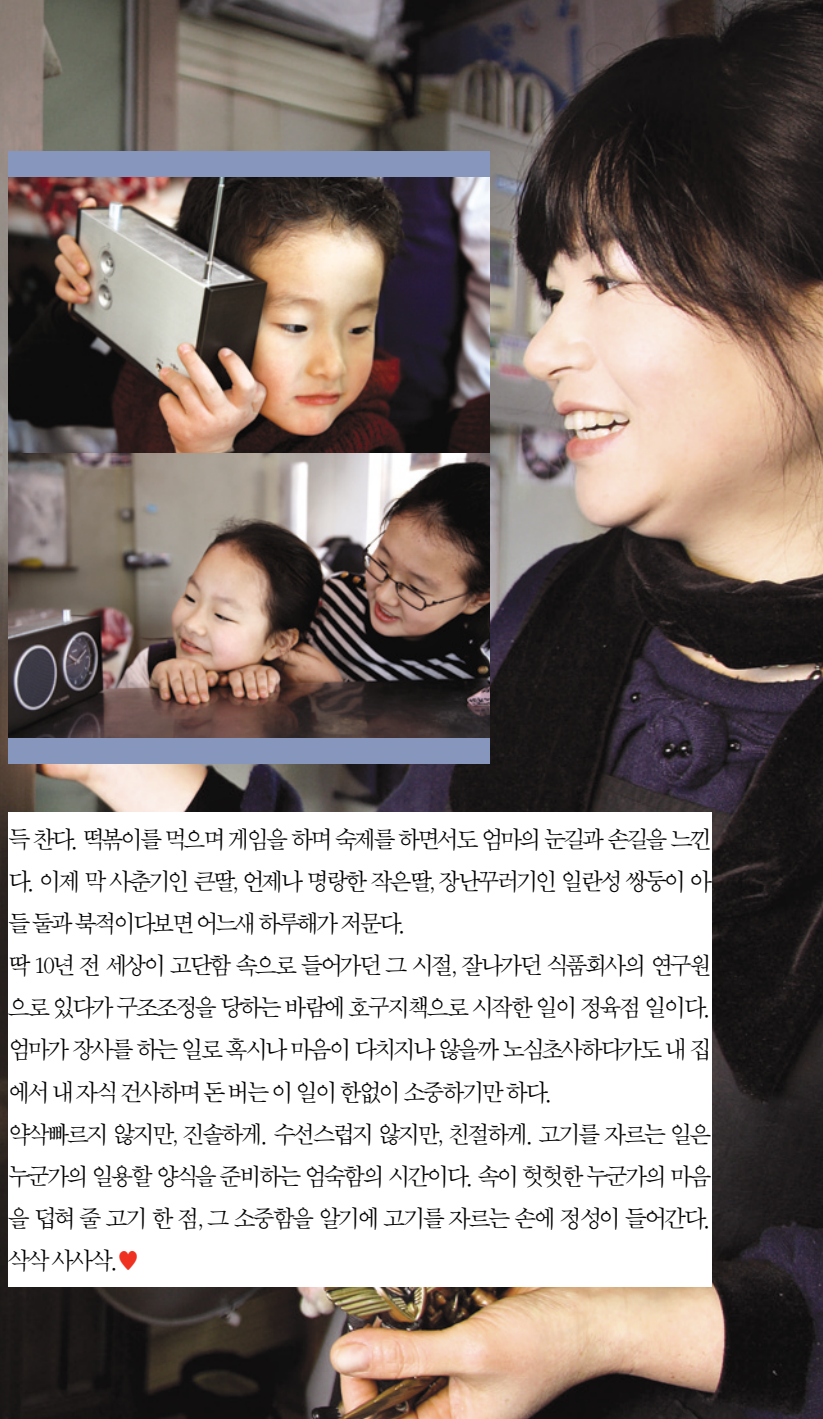
“ 가게에 딸린 조그만 방은 언제나
아이들의 소리로 가득 찬다.
떡볶이를 먹으며 게임을 하며
숙제를 하면서도
엄마의 손길을 느낀다. ”



득 찬다. 떡볶이를 먹으며 게임을 하며 숙제를 하면서도 엄마의 눈길과 손길을 느낀다. 이제 막 사춘기인 큰딸, 언제나 명랑한 작은딸, 장난꾸러기인 일란성 쌍둥이 아들들과 북적이다보면 어느새 하루해가 저문다.

딱 10년 전 세상이 고단함 속으로 들어가던 그 시절, 잘나가던 식품회사의 연구원으로 있다가 구조조정을 당하는 바람에 호구지책으로 시작한 일이 정육점 일이다. 엄마가 장사를 하는 일로 혹시나 마음이 다치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다가도 내 집에서 내 자식 건사하며 돈 버는 이 일이 한없이 소중하기만 하다.

약삭빠르지 않지만, 진솔하게. 수선스럽지 않지만, 친절하게. 고기를 자르는 일은 누군가의 일용할 양식을 준비하는 업승함의 시간이다. 속이 헛헛한 누군가의 마음을 덥혀 줄 고기 한 점, 그 소중함을 알기에 고기를 자르는 손에 정성이 들어간다. 삭삭사삭. ♥





• 일러스트_ 김금복

Letter 01_ 나만을 위한 밥상

Letter 02_ 회장님께 드리는 편지

Letter 03_ 어찌해야 하나요?

Letter 04_ 감옥에서 보내는 편지

Letter 05_ 며느리에게 '보험'을 드시다

Letter 06_ "미쳤어"라니?

Letter 07_ 목욕탕의 두 할머니

Letter 08_ 여기는, 세종기지

Letter 09_ 유혹을 이기다

Letter 10_ 칭찬의 힘

Letter 11_ 무기수의 자식사랑

Letter 12_ 중점 아줌마

Letter 13_ 사장님과 임금체불

Letter 14_ 내 사랑 장미



나만을 위한 밥상

● 글_홍옥단 |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하루종일 겨울비가 내렸습니다. 이른 새벽, 밤새도록 길거리를 누비다가 새벽에 교대하고 들어온 남편이 “비도 오고 춥더라. 옷 뜨시게 입고 출근혀” 하더군요. 택시운전을 하는 남편은 피곤했는지 밥 한 술에 소주 반 병을 마시고는 이내 잠이 들더니 코를 골았습니다.

행여 남편 잠자는 데 방해가 될까봐 조심스럽게 아들녀석의 아침을 준비해놓고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9시 5분 전, 커피 한 잔을 마시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와서 그런지 기분이 착잡한 게 영 일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런데 11시쯤 한통의 문자메시지가 왔습니다.

‘어이, 나군자동에 왔는데, 점심 같이 먹자.’

고향 친구였어요. 다른 때 같았으면 “지금은 좀 그러네. 담에 먹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 그래. 점심시간 한 30분 빼 달라고 하지 뭐”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친구와 점심을 먹으며 짧은 시간에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친구는 밥을 먹으면서도 내 손가락 위에 도토리묵을 올려주며 “이거 많이 먹어. 중금속을 빼내는데 좋대.”, “된장국이 참 맛있다. 떠 먹어봐.”, “어, 이 찜도 참 맛있겠다” 하며 상추 한 잎, 깻잎 한 잎 올려 고기 넣고, 야채 넣어 크게 한 입 찢어서 내 얼굴 앞에 내밀더군요.

참 많이 변한 친구와 짧은 점심시간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와 일을 하는데, 오후

시간이 참 잘 가더라고요. 우울한 하루가 될 뻔했는데, 그 친구가 와서 확 풀어주고 간 셈이죠.

퇴근 무렵, 공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저녁밥을 무엇으로 정해서 어떻게 맛있게 먹느냐로 이야기가 모아졌습니다.

“오늘, 비가 오니까 마지막 듬뿍 넣고, 칼국수를 해먹어야지” 하는 금옥 씨, “그냥밖에 나가서 소주 한 잔 할 거야, 우리 신랑하고” 하는 미영 씨, “우리 라면!”, “우리 밥 금방 해서 고추장에 비벼 먹을 거야” 등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먹는다고 난리 듭니다.

그런데 나는 가만히 생각해보니 ‘혼자서 뭘 얼마나 먹겠다고 새로 하나’ 싶어서 그냥 점심에 친구랑 쌤밥 맛있게 먹었으니가 건너뛰기로 마음먹었지요.

그런데 퇴근을 해서 집에 오니까 기분이 허전한 게 영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만을 위한 밥상’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쌀 한 보시기 씻어 냄비에 얹혀 밥 올리고, 냉동실에서 조기 두 마리 꺼내 오븐에 굽고, 뚜껑에 된장 풀어 조갯살 넣고 바글바글 끓여오른 국물에 두부·양파·마늘·대파를 넣고 고춧가루도 조금 넣어 된장찌개를 준비했죠. 반찬은 멸치볶음·콩자반·묵은 김치·달랑무·갓김치를 작고 예쁜 접시에 아주 조금씩 담아 차렸습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하얀 밥, 먹음직스럽게 노릇노릇 구운 조기 두 마리, 보글보글 소리를 내며 여전히 끓고 있는 된장찌개.

우와! 내가 봐도 참이 고이는 밥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밥상을 앞에 두고 쳐다보니 왜 그리도 웃음이 나오던지요. 혼자서 빙그레 웃다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 어디?”

“음, 여기 강남. 왜?”

“아니 그냥. 당신 밥 안 먹었으면 같이 먹으려고.”

“어, 아직 생각 없고... 손님이 타셔서.”



“그래 알았어!”

통화를 마치고 우두커니 앉아 밥상을 보니까 조기 두 마리가 ‘그러기에 그냥 대충 때우지. 뭐하려고 우릴 오븐에 넣었수?’ 하는 것 같아 주섬주섬 다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구마 한 개를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먹어치우며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나만을 위한 밥상’이라는 이름을 걸고 요리를 하고, 차리는 시간이 엄청 좋았습니다. 가끔은 이런 시간을 만들려고 해요. 웃음이 나와 다시 냉장고에 넣어 라도요.

우울할 때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로 나를 웃게 해준 친구가 고맙고, 스스로를 위해 한 번쯤 이런 여유를 가진 내 자신이 고맙고, 오늘 저녁에도 열심히 도로를 누비고 있을 남편이 있어 고맙고, 조금만 있으면 “어무이, 아들 귀가했습니다” 하고 내 품으로 안길 이들이 있어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늘 또 하루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



회장님께 드리는 편지

● 글_유선미 | 광주시 서구 치평동

회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전형준 انسان 되는 송이엄마입니다. 외람되게 이런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15년이란 짧은 세월을 회사에 다니고,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회사를 나오게 된 남편이 고통스럽고 힘든 기억보다는 좋은 기억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마음이었으면 하는 제 작은 바람 때문입니다.

회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애기아빠가 회사에 몸담은 이후 꼬박꼬박 월급을 받아오던 지난 15년 동안 다섯 식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많은 월급은 아니지만 안정된 직장이라 자식 셋을 키우면서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불안정했던 저의 가족은 그때부터 안정기에 접어들기 시작했지요. 회장님께서 한 사람의 월급을 주는 것이었겠지만 남편의 월급으로 5명의 가족이 먹고 살았습니다.

자존심 강한 사람이라 어렵고 힘들 때도 많았겠지만 남편은 정말 가장으로서 최고였습니다. 성실한 남편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평생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직장이나날이 어려워지는 걸 알고 남편은 밤잠을 설쳤습니다. 옆에서 남편을 보기에 도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렸습니다.

요즘은 40대 가정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남들 이야기로 알았고, 저희 가족에게 이런 날이 올 거라 생각도 못했는데... 지난 몇 달간은 살얼음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그날 할일도 없는 회사에 출근하면서 눈치 빠른 남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요. 가족 때문에 그만둘 수도, 남아 있을 수도 없던 남편을 생각하면 제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합니다.

저도 작은 가게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열심히 살았지만 아이들은 커가고 정말 빠듯하게 살고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가장 먼저 자기를 그만두게 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남편이 선뜻 그만둘 수 없었던 이유가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회장님도 회사가 어려워져 자식과도 같은 직원들을 내보내야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파 손가락 마디마디 잘라내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마음 열 번 이해하고, 또 이해합니다.

그러나 회장님! 이제 애기아빠 나이 마흔여섯입니다. 가족에게도 다 말할 수 없어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제 남편의 심정도 조금 헤아려 주세요. 젊지도 않은 나이에 또 새로운 곳에 가서 다시 정착해야 하는 40대 가장의 마음을 회장님께서 따뜻한 말 한 마디로 어루만져 주실 수는 없나요?

평상시처럼 다정하게 “형준아!” 하고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내 뒤에 들어와 고생 많았노라고, 본의 아니게 보내게 되어 마음이 섭섭하다고, 가야 하는 그 사람의 서글픈 마음을 어루만져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는 그 사람 마음이 조금 편안하게,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위로받았던 그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회장님께 따스한 위로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얼굴 한번 뵈는 적 없지만 지금도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100세까지 만수무강하십시오. ♥





어찌해야 하나요?

● 글_고재영 | 경기도 군포시 오금동

저는 경기도 군포시 산본에서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연말연시만 되면 제게는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취객들이지요. 가게 앞에서 자는 취객들을 집으로 돌려 보내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모른 채하고 집에 가야 하나요?

바로 얼마 전의 이야기입니다. 가게를 마치고 집에 가려 하는데, 가게 앞에 신발 두 짝이 나란히 놓여 있더군요.

‘웬 신발이지? 누가 신발을 이곳에 가지런히 벗어 놓은 거야. 내일 주인을 찾아 줘야겠네.’

신발을 들고 가게로 들어가려는 순간, “아! 물 한 잔 떠와. 시원한 냉수 한 잔 가져와 봐”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또 누군가 길거리에서 자고 있구나. 누군지 참’ 하며 계단 밑을 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술에 잔뜩 취한 아저씨가 계단 옆에서 갈바닥을 요 삼고 하늘을 이불 삼아 누워, 추운지 잔뜩 몸을 웅크린 채 물을 떠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시더라고요.

‘참나! 기가 막혀서.’

그래서 저는 가게로 다시 들어가 시원한 물에 설탕을 타서 가져다 드렸습니다. 설탕물을 드시더니 “개! 좋다” 그러면서 또 자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흔들면서 “집이 어디냐?”, “전화번호가 몇 번이냐?”고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네요. 그래서 제가 그분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댁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잠시 후, 가족 분들이 나오시네요. 그런데 그분들은 바로 우리 빵집의 단골 손님 이셨습니다.

“어, 빵집 주인아저씨네. 아저씨가 전화하셨어요?”

“네.”

아주머니께서 창피한지 안색까지 변하면서 “이 양반이 왜 안 하던 것을 하고 그러지?” 하면서 아저씨에게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애야! 정신 차리세요. 창피하게 이게 뭐야? 여보, 여보.”

집으로 향하면서도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집에 거의 도착해서야 저에게 연신 “고맙다”면서 “빵을 사러 오겠다”고 몇 번이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아주머니는 아저씨를 댁으로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별 탈 없이 아저씨를 보내드렸는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의 매일 오시다시피 하던 그 단골손님, 더구나 꼭 빵 사러 오신다고 말씀하시던 분이 그날 이후 발길을 뚝 끊은 겁니다.

그날 일이 민망하셨는지 두 번 다시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요즘 자영업자들 장사가 예전만 못하다는 거 다 아시죠. 재료비 상승에 이제 가스비, 전기요금까지 인상을 한다고 하네요.

제 고민은 바로 이것입니다. 경기도 안 좋은데 취객들을 집에 보내드려 단골손님을 빼앗기느냐, 아니면 모른 체해서 단골손님을 지키느냐. 누가 제게 명쾌한 답 좀 주세요. 취객을 모른 체하자니 양심이 울고, 취객을 집에 모셔다 드리자니 매상이 줄고….

‘아! 어찌란 말입니까?’

자영업자들은 너무 힘든데 가게 세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IMF 때 가게 세를 내려줬는데, 지금이 그때보다 더 힘든데 주인은 세를 좀처럼 내려줄 생각을 안 하네요. 같이 사는 세상, 상생하는 마음으로 상가를 소유하고 계시는 소유주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가게 세 좀 조금만 내려주세요. ♥



감옥에서 보내는 편지

● 글_애청자

사랑하는 부모님께!
사동과 사동 사이로 매서운 바람이 부네요. 창문을 열어 놓으면 환기가 돼 좋긴 하지만 오늘은 꽤 춥더라고요. 닫아 놓은 창문이 바람 때문에 덜컹거려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종이를 몇 번 접어 창문 틈으로 끼워 넣으니 덜 하네요.

지금은 늦은 시간, 저녁 11시 28분을 막 지나네요. 붓물이 터진 듯 짙은 어둠이 왔어요. 이놈의 바람이 새침데기인지 언제 그랬냐는 듯 지금은 사위가 고요해요. 옆방 사람의 낮게 코고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오지만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은 정적이네요.

어제의 접견은 4개월 만이었죠? 아빠는 더 오랜만이지만요. 꽤 오랜 공백기 때문인지 면회실로 들어오신 엄마는 눈시울을 붉히며 눈물을 몇 방울 흘리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건강히 잘 지내고 있다고 웃음으로 가시는 걸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드리려고 노력했지만 면회를 마치고 돌아서니 마음 한구석이 왠지 쓸쓸하고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왜 모르겠어요. 자식이 징역을 살면 그 부모도 징역을 산다는 것ですよ. TV 드라마에서 힘든 교도소 생활이 나와 그걸 보며 걱정을 많이 하셨다는 엄마. 하지만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

이곳은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고, 뒷골목 어둠을 헤매던 거친 남자들만 모인 곳으로 약육강식의 세계인데다 온갖 권모술수가 판을 치지요. 좁은 곳에

서 챗바퀴 돌 듯 매일 반복되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 여기 사람들은 속도 참 좋아
저요.

저도 ‘좀생이’가 된 것 같아요. 사소한 일에도 상처받고, 서운해 하고, 밖에선 호
탕하게 한 번 웃고 슬쩍 넘길 일도 이곳에선 오랫동안 꿋꿋해 있기도 하네요. 이런 이
유료 동료끼리 간혹 주먹다짐도 하죠.

그런데 저처럼 정력이 많이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실하게 살아 하루라도 빨
리 출소하라고 신경을 써주기 때문에 자주 시비를 걸지 않아요. 시비를 걸더라도
어려서부터 동네 골목대장 노릇을 하던 제가 맞고 다닐 ‘비실이’는 아니잖아요.

물론 이 아들은 하루라도 빨리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 참고 또 참을게요.
자기를 조금 낮추고 지내면 괜찮아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잖아요.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라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좋은 사람들도 많아요. 정말 ‘악질’도 있
지만 그건 극소수죠.

밖에서 신경 써 줄 사람이 없어 비누도 없이 맨 물로 씻고, 옷 한 벌로 겨울을 나
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옷이라도 세탁하는 날엔 갈아입을 옷이 없어 하루 내
내 맨몸에 파란 수의만 달랑 걸치고 모진 추위를 견뎌야 하지요. 그래도 인정은 있
어요. 생활이 좀 나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 자신도 뻑뻑하지만 더 힘든 동료를 위
해 기꺼이 손을 내미는 그런 온정 말이죠.

나라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지만 턱 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에요. 밖에서
도 경제난으로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던데, 여기 이곳은 오죽
하겠어요. 한편으론 죄책감이 들기도 해요. 죄 지은 우리들이 국민들이 낸 세금으
로 하루 세 끼 꼬박꼬박 먹는 게 미안하죠. 어쩔 수 없어 하루 한 끼를 굶는 사람들
도 많은데 말이예요.

엄마·아빠의 직장에서 주는 임금은 제자리걸음일 텐데, 물가는 뭐가 그리 빨
랐는지 무섭게 치솟는지요. 서민들이 골각골각하고 여기저기서 허우적대는데 엄
마·아빠라고 안 힘들까요. 힘내세요. 엄마·아빠!



제가 읽는 책들에 제기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아요. 이 아들, 책을 많이
보며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글쓰기에 관심이 많아서 요즘 어휘와 문법을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주위에서 그러더라고요. 이제 스물넷인데 나이에 안 맞게
제가 생각도 깊고, 글도 참 잘 쓴다고요. 그래서 나이가 마흔이 된 형님들 대신 편지
대필도 가끔 해드리고, 독후감 제출해 상을 타기도 했어요. 한문 3급 자격증은 이미
취득했고, 지금은 2급을 준비하고 있어요. 대입 검정고시도 준비중이고요.

원래 밤 10시면 잠에 들지만 오늘은 잠이 오지 않고 생각만 자꾸 나네요. 시간이
언제 이렇게 흘렀는지. 형이 벌써 결혼할 나이가 됐다니! ‘픽’ 하고 웃음이 났다가
마음이 불편해지네요. 제 죄가 가장 큰 이유죠. 드라마나 영화에서 일어난 일들이
제게 일어나다 보니 당혹스럽기까지 하네요. 걱정스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제 엄마가 제 이런 처지를 숨겼다고 했지만 그건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

해요. 그렇다고 제가 서운한 것은 아니에요. 제 처지를 밝혀서 좋을 건 없지만 앞날을 내다보자면 더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의 하나 훗날 형의 가정에 문제가 생겨 일이 난다면 제 일도 사기 결혼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처음부터 밝히지 않았냐며 책잡힐 수 있어요. 설령 제 일을 숨긴다 하더라도 뒤에 밝혀진다면 그 사태도 장담 못 하겠죠.

제가 엄마·아빠와 형의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뻔히 보여요. 배우자가 실형을 받으면 합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바로 이혼승인이 나온다는데, 제 문제도 그러네요.

하나밖에 없는 형인데 제가 걸림돌이 되는 걸 뻔히 알고도 어찌 편할 수 있겠어요. 혹여나 있을 우환을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당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형과 결혼할 여자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야 잘못을 저지른 장본인이지만 아무 잘못 없는 가족들의 심정은 더 하겠지요. 편지를 쓰는 내내 자꾸 눈물이 나요. 우는 모습을 거울로 비춰보면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아픈 눈물이에요.

이 편지를 받고 속상해 하실 가족의 모습이 뻔히 보이지만 지금 제가 흘리고 있는 눈물엔 깊은 참회의 의미도 있고, 앞으로의 굶은 다짐과 훗날 출소했을 때 펼칠 용기가 듬뿍 담긴 눈물이기에 감추지 않고 보여드려요.

지금도 자신감에 차 있고 앞으로 이 자신감을 잃지 않을 거예요. 엄마·아빠! 이 아들 절대 나약하게 쓰러지지 않아요. 나중에 출소하면 꼭 잘 살고, 잘 할게요. 두고 보세요. 약속드립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며 수많은 약속을 하잖아요? 오늘 드린 약속은 언제나 1순위로 아니 0순위로 자리매김할 겁니다.

엄마·아빠! 고마워요.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아들 민쥬?

날씨가 꽤 추워졌어요. 마음이 추우면 몸이 더 추워지는 법이지만 저는 가족들이 곁에 있기에 늘 훈훈합니다. 정말, 진짜로 사랑해요. ♥



며느리에게 ‘보험’ 듭시다

● 글_서상주 | 경남 마산시 산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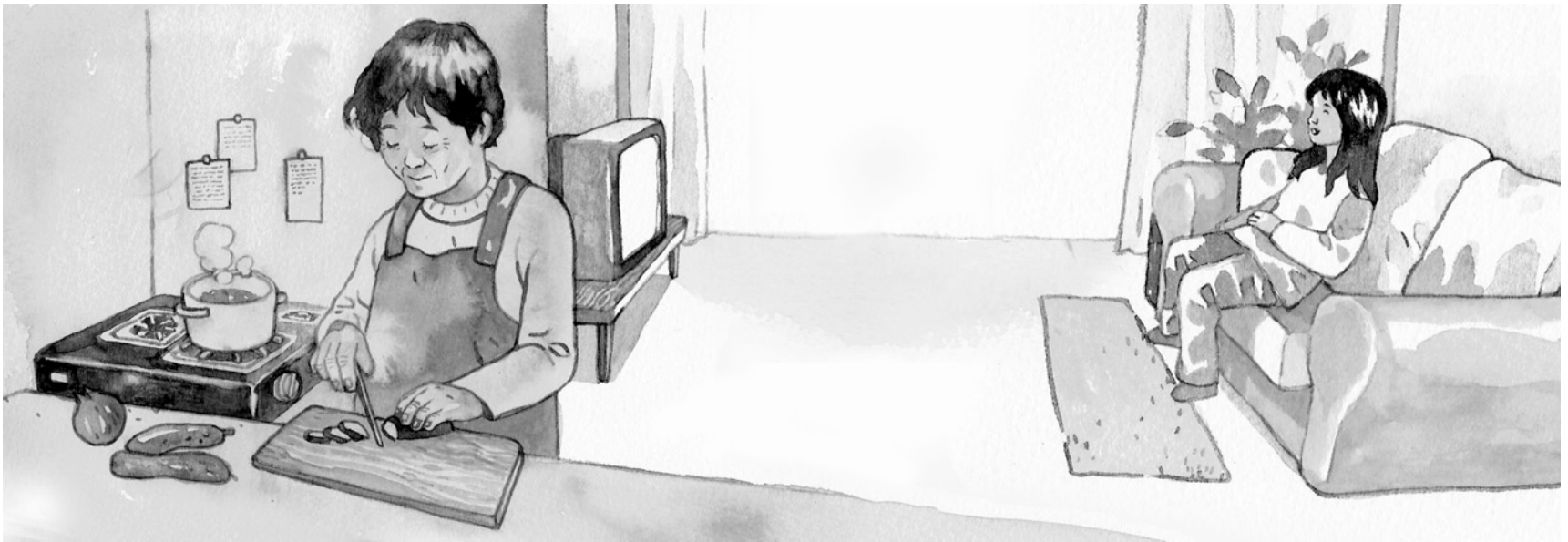
저는 수년 전에 퇴직한 교원입니다. 아들만 둘로 큰애는 결혼 7년차고, 막내는 천주교 신부가 돼 모두 독립해 살고 있습니다. 자고 나면 변하는 세상이라더니, 고분 간의 관계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하늘 같은 시어머니와 고된 며느리 시집살이는 이제 옛날이야기로 보입니다. 저희 집만의 유별난 일인지 모르겠으나 제가 경험하고 있는 걸 사실대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희 집 며느리는 신세대 맞벌이 부부로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느 집이나 그러하듯이 해마다 명절에 귀향하면 2~3일을 같이 보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 집 특유의 이런저런 재미있는 고부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집으로선 하나뿐인 며느리!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말이 있듯이 귀한 딸 하나 얻은 마음으로 온갖 사랑을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인 집사람은 오히려 저보다 몇 박자 앞서 속도위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집사람은 명절 10여 일 전부터 며느리 맞이할 계획을 세웁니다. 며느리에게 무엇보다 깔끔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미루어 온 세탁은 물론 집안 구석구석 대청소를 합니다. 당연히 저도 팔짱만 끼고 있을 수 없죠. 창문·화장실·다락·배수구 소독 등은 모두 제 몫입니다. 문자 그대로 한바탕 집 때를 벗기는 작업입니다.

저는 퇴직 후에 방청소는 물론이고 커피·라면·짜개 준비에다 간단한 세탁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집사람이 “무엇보다 당신 건강을 위해 무조건 움직여야 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니까요. 이러다보니 지금은 집사람에게 눈치 아닌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시어머니 일을 돕고자 부엌에 들어가면 “피곤할 텐데 TV나 보고 그냥 쉬도록 해. 신경 쓰지 말고, 괜찮아” 하며 다독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아침 준비도 내가 할 테니 편안하게 늦잠이나 푹 자라”며 미리 선언해줍니다. 또 아침에는 며느리가 깨지 않도록 까치발로 조심조심 움직입니다.

며느리도 새댁일 때 몇 년 동안은 미안한 듯 조심스러워하더니, 이제는 면역이 돼서인지 TV 만화를 보며 깔깔댁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색다른 좋은 이미지로 오래 기념하라며 우리 집 현관 전자키 비밀번호도 아들·며느리의 결혼기념일 숫자로 해두었습니다.

언젠가 제자로부터 받은 홍삼분말을 먹지 않고 아껴두었는데, 며칠 전 며느리에게 보산하라며 보냈습니다. 집사람은 며느리로부터 받은 아무리 사소한 선물에 대

해서도 반드시 답례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집사람은 새해 달력이 나오기가 무섭게 가장 먼저 며느리 생일과 결혼기념일부터 동그라미를 칩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고부 사이라고 하기에 그 정성이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믿지 못하시겠지만 정작 ‘우리 노인네 생일(제 생일)’은 우물쭈물하다가 그냥 적당히 넘기기도 합니다. 퇴직하니 이제 찬밥신세인가 싶어 섭섭한 눈치라도 보이면 집사람이 말하길 “건강과 돈이 있으면 언제나 생일, 명절인데 무슨 소리냐?”며,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는 발상전환을 하랍니다. 며느리에게는 좋아하는 음식, 식성까지 챙기면서 말합니다.

집사람은 며느리가 다녀가고 나면 한바탕 몸살을 치르기도 하니 우리 집 ‘명절 증후군’은 며느리가 아니라 시어머니에 해당되는 이야기죠. 이쯤 되면 우리의 전

통가족 정서로 미뤄보아 코미디 같은 지나친 호들갑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주변에서 “며느리 관리 잘못하고 있어 곧 후회할 거라”며 눈총을 주기도 합니다. 이럴 때마다 집사람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을 때 며느리에게 ‘보험’을 들어둔다”며 웃어넘깁니다. 속된 말로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라는 거죠. 시부모가 당연히 일방적으로 존경받고 대접받으며 군림하는 시대가 아니라 는 겁니다. 특히 고이 기른 남의 딸, 억만 겁 인연으로 만났으니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며느리! 사실 가방 몇 개에 원룸 셋방으로 시작한 고된 신혼살림이었지만 맞벌이로 당당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사실 고맙고 대견합니다. 그리고 고부간이지만 집사람이 며느리를 특별히 아끼는 이유는 며느리가 누구의 어떤 딸이라도 끝까지 경청하는 자세를 보이고, 젊은 새댁답지 않게 말을 절제할 줄 안다는 점 때문입니다.

‘침묵의 미덕’이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삶의 노정에서 말로 인한 온갖 폐해를 생각하면 더없이 중요한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 집으로서는 더없이 귀하고 알찬 신세대 며느리 ‘보물’을 얻은 셈입니다.

오늘 날 노인이라고 해서, 시부모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당연히 대접받고 무조건 이해되어야 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어디를 가도 노인들로 넘쳐나니, 늙어 미안한 시대 아닙니까?

시대와 사람은 흘러가게 마련이니 시부모님들 역시 늙어가는 모습만큼 또 다른 깨달음의 지혜가 필요한 때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깨달음이 늘어가는 노인이라면 그런대로 참 멋진 인생의 마무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편안히 복되게 세상을 하직하자면 먼저 잘 살아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기자기한 고부간의 사랑을 위해 무엇보다 먼저 신세대 며느리에게 ‘보험’을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비록 계약서나 약관 없는 보험이지만 말입니다. ♥



“미쳤어”라니?

● 글_최성화 | 경남 창원시 도계동

지 난 일요일이 친정엄마의 생신이었습니 다. 모처럼 온 식구가 모여 술이라도 한 잔 하려면 토요일 저녁이 좋을 것 같아 앞당겨 날을 잡았습니다. 그날 오후, 준비를 다하고 남편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 다.

“넌데, 내 좀 늦을 거 같데이.”

“와예?”

“내가 지난번에 친구 통해서 소머리 부탁해왔던 것 안 있나. 그거 좀 이따가 갖고 온다 그러네. 내 그거 갖고 갈게.”

실은 지난번에 시골에 다녀왔는데, 그때 시어머님이 입맛이 없다며 영 밥을 못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추운 날씨도 곰거리라도 좀 해드려야겠다 싶어서 혹시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부탁 좀 해보라고 말을 해두었습니다. 저화가 봐서 한우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나요.

저녁 7시가 넘어서야 남편은 숨을 헐떡이며 커다란 상자 하나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뭐가 이래 무겁노. 이럴 때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는 건데. 헉헉.”

저희는 4층짜리 건물이라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밑에서 전화라도 하지 그랬어예. 그러든 내가 내려갈 거 아닙니까. 이 무거운 걸 와 힘들게 혼자 들고 오고 그럽니까.”

커다란 상자 안에는 엄청 많은 양의 곰거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와! 와 이래 많습니까?”

“그렇게, 소머리를 그 친구랑 반 나눴는데도 진짜 많제? 그리고 그 흰 비닐봉투에 싸인 거는 덤으로 등뼈 좀 넣었다카더라. 이거 냉동실에 다 들어갈 수 있겠냐?”

“안 들어가지예. 이 많은 게 다 우째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우째겠노. 이번 생신 때는 당신 혼자 친정에 갔다온니라. 내는 이거 촌에 엄마한테 갖다드려야 안 되겠나. 그리고 장모님한테는 내가 전화드리면 안 되겠나.”

“할 수 없지예. 그래 하이소.”

저는 서둘러 남편이 가져갈 짐이랑 시어머님께 드릴 소머리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얻어온 등뼈를 냉장고에 넣으려고 보니 양이 제법 많았습니다.

“자기가, 등뼈가 좀 많은데예, 친정에 갈 때 반 나눠서 가져가면 안 되겠습니까?”

“미쳤나?”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뭐라꼬예? ‘미쳤나?’ 그랬어예. 와 예?”

“니 머리카노, 딸내미 곰국 끓여준다 안 했나?”

“그랬지예. 수능이 코앞이라 공부한다고 힘들어 하니까 곰국 좀 해먹어야겠다고 했지예.”

“그런데 와 친정갈 때 가져간다고 그라노. 어?”

“내는데요, 한 번에 해먹기는 너무 많은 거 같고, 또 내일이 친정엄마 생신인데 빈손으로 가기도 뭐하고 하니까 이거라도 좀 가져가서 엄마드릴라고 그랬다 아임 니꺼.”

사실 며칠 전부터 친정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추석 때 와서 용돈 주고 왔는데, 내 생일이라고 또 돈 봉투나 뭐 사들고 오지 말거래이. 그랄라카마 함부레 오지 말거래이. 알았제?”

친정엄마는 당신 때문에 쓸데없이 또 돈을 쓸까봐 미리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

런 엄마한테 소머리도 아니고 공짜로 얻어온 등뼈를 좀 갖다드리겠다는데 남편이란 사람한테서 “미쳤나?” 하는 소리까지 듣다니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와예, 당신 엄마한테는 소머리 갖다드리면서 우리 엄마한테는 이것도 갖다드리면 안 됩니까. 당신이 갖다드리라고 해도 차별당하는 것 같아 기분이 안 좋을 텐데, 우째 말을 해도 그렇게 합니까. 딸 가진 부모는 부모도 아닙니까. 아들 가진 사람만 부모 대접 받아야 됩니까.”

저는 울면서 남편에게 대들었습니다. 너무 서러워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됐다. 고만해라이. 친정에 가든지 말든지 니 마음대로 해라.”

남편도 화가 났는지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친정에 가려고 화장한 얼굴에는 눈물이 범벅이 되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도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마음을 진정시키고 엄마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난데요. 내 못갈 것 같심다. 정 서방도 갑자기 촌에 갔고, 지금 이 시간에 내 혼자 갈라가이 그렇네예. 다음 주에 시간 내서 갈게예. 엄마! 생일 축하합니다이.”

전화를 끊고 밤늦도록 이불을 뒤집어쓰고 울었습니다.

친정에 다녀온 며칠 후, 친정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화야, 니가 사온 곰거리 참 구수하고 맛나더라. 너거 동생들이 맛있다고 난리다.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한 그릇 먹고 왔는데, 너무 맛있더라. 이제 그런 거 사오지 말고 정 서방하고 애들이나 먹여라. 니도 많이 먹고.”

엄마는 고맙다는 말까지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요?

‘엄마! 죄송해요. 그리고 너무 미안해요. 다음에는 엄마한테도 꼭 소머리로 사드릴게요.’ ♥





목욕탕의 두 할머니

● 글_윤순자 |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아침 일찍 목욕탕엘 갔다. 웬일로 한산했다. 내가 들어섰을 때 사람들이 불과 서너트에 불과했다. 난 사우나와 찜질방을 들락거려다 잠시 열기를 식히며 쉬는데, 한눈에 봐도 눈이 불편한 할머니 한 분이 더듬더듬 탕 입구의 문을 손대중 하셨다. 뒤이어 등이 90도로 굽은, 머리카락이 하얀 할머니가 켜 걸음으로 앞서 들어와 탕 안에 물을 열어주고는 앉을 자리도 마련해주셨다. 난 잠시 노곤한 몸도 쉴 겸 두 할머니의 낯다른 행동을 눈여겨보았다.

“아, 여그 앉아. 여그! 궁텅이 바짝 붙이고.”

앞이 안 보이는 할머니는 습관처럼 자꾸만 눈을 깜빡이며 물이 쿵쿵 쏟아지는 온탕 쪽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다.

“이봐. 여그 삼푸여. 머리부터 갹구라고. 땀시 낭게. 손 벌려봐. 내 짜줄 텐게.”

앞이 안 보이는 할머니는 백발의 머리에 거친 손으로 연실 거품을 내서 비벼대셨다.

“이봐. 다 갹균겨. 머리 숙여봐. 물 뿜 줄 텐게.”

서너 바가지 물을 퍼서 할머니 머리에 거품을 말끔히 없애주더니 허리가 굽은 할머니는 자리를 보다 편한 곳으로 혼자 옮겼다.

“이봐. 난 저어그로 가서 때 밀 텐게. 당신은 여그 앉아서 때 밀어. 그라고 등 밀 때 그땐 내가 또 올 텐게.”

두 할머니들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난 그 두 분이 어떤 사이인지 무척 궁금해졌



다. 생김새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서는 자매지간은 분명 아니고, 그림 친구 사이일까 아닐까?

두 시간가량 온탕과 냉탕으로 돌아다니며 몸을 풀었더니 좀 개운해지는 느낌이 었다. 난 몸의 물기를 닦고 탈의실로 나왔는데, 뒤이어 그 두 할머니들도 목욕을 다

하셨는지 내 뒤를 따라 나오셨다.

“이봐, 어디로 자꾸만 가는 거. 여그, 여그 앉아. 바로 옷장 앞 잉게. 가만 로션부터 발라야 쓰것네. 손바닥 벌려봐.”

두 할머니는 라커 앞에 앉아서 두꺼운 내복을 꺼내 주섬주섬 입으셨다. 기회는 이때다 싶어 내가 물었다.

“저, 할머니. 할머니는 앞이 잘 안 보이시나 봐요.”

“안 보이는 게 뭐여. 아주 깜깜절벽인데.”

“그러세요, 아이구! 얼마나 답답하세요.”

“말도 말아. 처음엔 잘 보였는데 앞이 요로코롬 안 된 게 햇수로 4년 되었는데 보네. 그러도 한쪽 눈은 보였는데, 어찌된 일인가 인간 둘 다 다통 안 보여.”

“그런데 두 분은 무슨 사이예요. 죄송하지만 아까부터 몹시 궁금했거든요.”

“우리? 히히히 친구지. 암만 친구지.”

등이 몹시 굵은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씀을 하셨다.

“그런디 친구는 친군디. 못써.”

“왜요?”

“아이고, 앞이 안 된다고 어찌나 나를 수족처럼 부러먹는지. 어쩔 땐 간난쟁이보 다 더 하고. 이런 심통쟁이 할망구가 없어. 아주 대장이랑게. 난 줄병이여. 암만. 히 히히. 아주 날 귀찮게 할 때가 많다니께. 근디 내가 O형이라 그런지 성질머리가 고약맞아서 그랑가, 화나면 막 퍼대고 소리질러버려.”

“아주 잘 하시는 거예요. 속에 담아두지 마시고 할 말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막 퍼 대세요. 그러면서 서로 푸시는 거죠 뭐. 아이구, 왜 그러셨어요. 할머니?”

“앞이 안 된 게 내가 대장이라도 해야지. 이, 내가 대장 맞지. 히히히. 그런디 나는 내가 더 어려서 난 일흔여덟이고, 저 망구는 여든둘이여.”

“그럼. 한참 언니네요. 망구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 아니예요?”

“히히. 그라니 몰라도 한참 모르고 까분다니께.”

“그런데요, 제가 두 분 아까부터 몰래몰래 봤는데 서로 돕고 챙겨주시는 모습이 너무 좋아보이세요.”

“이, 그랬어? 고맙네 그러. 별 사이 아니고 바로 옆집에 사는데. 잠은 따로 자도 매일 붙어다니. 우리 지금도 목욕 끝났응게 빙원도 가야 해. 우린 약도 같이 타러다니고 시장도 같이 다니고 그라. 어쩔 땐 아주 지겨워. 그러도 안 보면 보고 잡어. 히히히.”

등이 많이 굵은 할머니께 내가 말씀드렸다.

“서로 그렇게 의지하는 마음이 커서 그럴 거예요. 할머니들은 서로 친구잖아요. 할머니는 등이 굽어서 허리도 많이 아프실 테고 연세도 더 많으면서 참 좋은 일 하고 사시네요. 아마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두 분 꼭 건강하시고 서로 마음 변치마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아셨죠?”

“아이고, 고맙네. 젊은 사람이 참 씩씩도 허네이. 고마우이.”

등이 많이 굵은 할머니는 연세도 더 많으면서 앞이 안 보이는 할머니의 팔짱을 끼고는 서로의 몸을 의지한 채, 차디찬 겨울 공기를 이기면서 목욕탕 문을 나가셨다.

두 할머니를 보면서 문득 전래동화 한 편이 생각났다. 다리가 불편해 평생 외출을 전혀 못 하던 아이와 몸은 건강하지만 앞을 못 보는 장님인 친구가 알게 되면서 서로의 눈과 다리가 되어 돕고 살아가는 감동적인 이야기다.

어느 날 둘이 산속 깊이 들어갔다가 눈이 성한 아이가 금덩이를 발견하지만 물 질에 눈이 어두워 서로 싸우고 사이가 안 좋아질까봐 앞이 안 보이는 친구에게 금덩이를 못 본 척 알려주지 않고, 외면하지만 결국은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다.

다음에 목욕하는 날도 두 할머니의 옥신각신 다정한 모습을 다시 꼭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피곤함이 씻은 듯이 날아가 버린 기분이었다. 뭉뚱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까지 따뜻해지는 하루였다. ♥



여기는, 세종기지

● 글_김문용 | 남극 세종과학기지

“오 초(8) 누에베(9) 도스(2) 신코(5) 우노(1)…. OK, 무차스 그라시아스(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미고 차오차오(친구, 그럼 안녕).”

칠레 프레이기지에 무전으로 12UTC(아침 9시) 전문을 전송한 후, 오늘과 내일의 날씨를 기지 내 방송시설을 통해 알려줍니다. 저는 남극 세종과학기지에 파견되어 기상관측 및 예보를 담당하고 있는 ‘세종과학기지에서만 기상청장’ 김문용입니다.

서울에서 1만 7,000여 킬로미터 떨어진 남극 킹 조지 섬. 이곳에 우리나라 유일의 국제법상 ‘한국령’인 세종과학기지가 있습니다. 1988년 2월에 설립된 세종과학기지는 한국의 극지 연구를 수행하는 전초기지로서 20여 년 간 많은 성과를 이뤄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매년 17명의 대원을 선발하는데, 보통 13개월 동안 혹독한 환경과 싸우며 근무합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 룸메이트이자 미래 기상예보관 김명광(대기과 학연구원), 밤낮으로 별을 쫓는 양태용(고층대기연구원), 대원들의 이직저직 모두를 챙겨주고 형님처럼 아버지처럼 인자한 홍종국 대장(이학박사) 등 이렇게 한국 과학 발전뿐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으로 뭉친 17명의 대원들이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극반도 킹 조지 섬에는 칠레·러시아·중국을 포함한 8개 국이 모여 있습니다. 칠레 프레이기지에서 치른 2008년 남극올림픽에서는 각국 선수들과 한겨울 추위를 녹이는 치열한 경기를 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이메일 교환, 기념품과 패치를

를 교환하며 우의를 다졌습니다. 외국기지 대원들과 유대관계는 민간외교관으로서의 역할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종과학기지에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주5일 근무를 합니다. 휴일에는 각자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데, 그 레퍼토리가 꽤 다양합니다. 전 대원들이 함께하는 설상축구에서는 체력이 바닥나 공을 쫓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육관에서는 족구·배드민턴 시합이 벌어지고, 설원에서 남극의 정취를 만끽하며 스키를 탑니다. 바톤반도(세종과학기지 주변) 일주나 계절마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펭귄마을 탐사, 빙벽 풍경의 황홀함을 언제나 느낄 수 있는 마리안소만 탐사, 해표마을 탐사 등은 남극에서만 가능한 활동입니다. 이런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머릿속에 채우고 사진으로 담아갑니다.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는 바톤반도 일주 중 설원에서 녹은 얼음물에 속옷차림으로 들어가 본 것입니다. 손발이 시리기는 했으나 담력을 시험하기에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

한국에서는 남풍이 따뜻한 바람이지만 이곳에서는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 기온이 올라갑니다. 지리적으로 한국과 반대인 남반구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북풍이 불면서 눈이나 비가 오면 위성인터넷 안테나가 얼어 인터넷이 안 됩니다. 밖에 나가서 빗자루로 쓸어주면 10분 정도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곳을 빗자루로 쓸고 나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쓰려고 뛰어오던 일들이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북풍에 대한 추억으로 말이죠.

이곳에는 감기바이러스가 살 수 없어 대원들끼리만 지낼 때는 감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하계대 등 외부인이 들어오는 여름 시기에는 외부에서 묻어온 바이러스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무와 풀이 없습니다. 녹색식물을 보는 게 작은 소망이기도 합니다. 오염된 공기 또한 남극에서 보기 힘듭니다. 이처럼 남극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쁘게 앞만 보며 달려온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건강과 자기계발을 통해 후회 없

는 40대를 보내고자 남극생활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남극에 가게 되었다는 소식에 가족들 모두가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나의 의지가 워낙 확고해 모두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근무지였던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서는 지역 선후배들이 조용히 넘어갈 수 없다며 축하 현수막을 마을 한복판에 걸어주었습니다.

가족과는 인터넷 메시지를 통해 화상통화를 자주 합니다. 매일 찍은 사진을 보내주면 아이들은 아주 신기해하고 친구들에게 자랑한다고 합니다.

지난달 13일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 지 10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10주년 결혼기념일을 함께하지 못하는 미안함과 제가 없는 동안 가정을 잘 꾸려준 아내에게 고마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혼 전 제대로 된 프러포즈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 아래에 적은 한편의 시로 프러포즈를 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하

창가 사이로 촉촉한 얼굴을 내비치는 햇살같이
흘러내린 머리를 쓸어 올려주며 이마에 입맞춤하는
이른 아침 같은 사람이 당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드러운 모카 향기 가득한 커피 잔에
살포시 녹아가는 설탕같이 부드러운 미소로 하루시작을
풍요롭게 해주는 사람이 당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분분히 흩어지는 벚꽃들 사이로
내 곶가를 간지럽히며 스쳐가는 봄바람같이
마음 가득 설레이는 자취로 나를 안아주는 사람이
당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메마른 포도밭에 떨어지는 봄비 같은 간절함으로



내 기도 속에 떨구어지는 눈물 속에 숨겨진 사랑이
다른 사람이 아닌 당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영원히 사랑으로 남을...
어제와 오늘... 아니 내가 알 수 없는 내일까지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당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지금 새벽 3시가 되면 환해지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어두워집니다. 한밤 중에도 불빛 없이 다닐 수 있습니다. 이곳의 하지(12월 22일, 물론 한국과 반대입니다)가 지나면 다시 낮의 길이가 줄어듭니다. 하루하루 가족과 만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영화 <리브 액츄얼리>에서처럼 공항에서 가족과 만나는 갖가지 장면과 그 시간을 상상하며 웃어봅니다. ♥



유혹을 이기다

● 글_김정양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저는 공항버스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딸 둘에 결혼 13년차로 맞벌이를 하고 있는 사랑하는 아내와 전원일기에 자주 배경되는 시골마을에 노모를 두고 있는 우리 시대의 아주 평범한 40대 가장입니다.

결혼 13년 동안 출산하는 달 외에는 단 한 달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는 아내를 두고도 그나마 아직은 우리 시대의 평범한 가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같은 업계에서 다소나마 경쟁력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시각각 급변하는 환율 때문에 여행객이 급감하면서 우리 회사도 혹독한 고통의 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급기야 노선별 감차운행으로 근무일수가 예전의 80%로 줄어들었습니다.

근무일수가 줄어 든 만큼 수입도 줄어 급기야 둘째의 학원도 어렵게 설득하고 타일러 끊었습니다. 같이 타고 다니던 학원버스에 오펜만 보내고 뒤돌아오는 딸아이의 모습이 눈에 밟혀 마음 무겁게 일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때처럼 운행을 끝내고 주차장에서 차량 정리를 하고 있는데, 버스 중간쯤 의자와 창문 사이에 하얀 종이봉투가 보일 듯 말 듯 눈에 들어왔습니다. 직감적으로 돈 같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겨우 손을 넣어 꺼내 보고서야 엄청난 미화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봉투에는 시중은행 로고만 있고 볼펜 글씨로 '100\$*150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언뜻 계산 해봐도 우리나라 돈으로 2,000여만 원의 현금다발. 순간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심장 박동이 버스 전체를 울릴 만큼 뛰었습니다.

버스 창가 주변을 살피고는 이내 다리에 힘이 풀리는 듯한 느낌에 좌석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버스 안, 불규칙한 심장박동 그리고 손에 쥐어진 거금의 돈봉투.

최근 학원을 끊어 미안한 마음이 커서인지 순간 딸아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늘 같이 다니던 학원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창가의 오펜과 시선을 맞추면서 몇 걸음을 뒤따르다 이내 멀어지는 버스를 뒤로하고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또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상 차려놓고 새벽출근을 하는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버스비라도 아낀다며 그 새벽길을 몇 년째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억척 아내. 겨울만 되면 기름 값 부담에 보일러를 켜지 않고 전기장판에 여러 겹 이불만을 덮으셔서 늘 기침에 잔병을 달고 사시는 어머님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한두 해만 더 고생하면 방 세 칸 있는 집에서 잘 모시겠다는 기억 없는 못난 자식의 약속만을 철석같이 믿고 벌써 13년여를 홀로 지내는 어머님.

그리고 알뜰시장에서 구입한 점퍼를 3년 동안 입으면서도 불행 한 번 없는 아들 얼굴 역시 떠올랐습니다. 월 1만 5,000원의 용돈 8개월을 모아 그토록 갖고 싶어하던 메이커 운동화를 산 아들녀석. 모두가 한없이 부족한 이 아빠를, 남편을 그리고 자식을 믿고 기다려주는 가족들 얼굴이었습니다.

제게 이 돈은 일순간에 부족함을 다 채워주고도 한참 남는 큰돈이었습니다. 제 상상은 떨리는 손과 쿵쾅거리는 심장박동과 더불어 계속되었습니다. 이번 한 해만 더 집세를 올리지 말아달라고 사정사정을 했던 저보다 나이 어린 집주인에게 딱하니 500만 원 던져주고, 보일러가 오래돼 자주 고장 나서 불편하니 당장 바꿔달라고 큰소리 한번 치고 싶었습니다.

12년 된 승용차, 연식이 오래되다보니 요즘처럼 추운 날이면 30분이나 씨름해야 겨우 운행을 할 수 있는 애플단지를 이참에 맘에 두고 있던 모텔 중고차로 확 바꿔버려? 대충 계산해보니 보증금 500만 원, 중고차 450만 원, 학원비 30만 원, 난방기름



3드림 40만 원, 집사람 버스카드 충전비 15만 원, 처가 어른들 식사와 용돈 35만 원 등을 다 합해도 1,100만 원 정도 되더군요. 그러고도 900여만 원이 남으니, 정말 큰 돈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순간 저는 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가족 모두를 한순간이나마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돈은 1,100만 원이면 됩니다. 그러고도 900만원이 남으니, 남은 돈만은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저를 혼란케 했습니다.

‘900만 원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주인부터 찾아야 하는데’, ‘주인 앞에서 과연 습득한 돈이 900만 원뿐이었다고 어떻게 말해야 하지?’, ‘찾은 돈 다 드릴 테니 잃은 셈치고 1,100만 원만 저를 달라고 하면 과연 그 주인이 수용을 할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었다는 결론을 내리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공항에 도착한 지 40여 분이 나 지났는데, 이 큰 돈을 환전해서 가져가려 했던 주인이 돈을 잃어버린 사실을 알고는 과연 어떤 심정일까?

한 달 전, 큰아이 급식비 4만 원을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두고 잃어버린 줄 알고, 보름여를 얼마나 남 몰래 속상해 했던 것과 우연히 안주머니에서 돈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던가를 생생하게 기억하는 저로서는 시간이 너무 지체되었음을 느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주인을 찾아 돌려줘야겠다고 사무실로 들어서면서 심장박동은 급격히 정상이 되고 안정을 찾아감을 느꼈습니다. 붉으라푸르라했던 얼굴도 적당히 울여름 태양과 씨름했던 구릿빛으로 돌아왔고요.

사무실에서 과장님은 “이거 너무 큰돈이니, 이곳보다는 공항경찰대로 보내서 빨리 주인을 찾아주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후 운행시간이 다 되어가면서 분실물 접수대장에 막 인적사항을 쓰려는 순간, 요란스럽게 울리는 전화기 소리에 이어 흘러나오는 다급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출국 층에서 잃어버리셨다고요? 네, 지금 이곳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네, 공항버스 기사님이 맞고요. 몇 시 비행기시라고요? 빨리 이곳으로 오세요. 여기

가..”

잠시 후 50~60대로 보이는 창백한 얼굴의 어르신이 공항경찰대로 들어서는 겁니다. 그 경직된 얼굴만으로도 돈을 잃어버린 주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가슴에 받아든 돈을 꼭 안고서는 ‘아이고, 아이고’ 하며 한참을 흐느끼셨습니다.

순간 얼마나 죄송하던지요. 그분의 흐느낌에서 그 돈이 얼마나 많은 사연을 가진 돈인지를 미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사례라니요. 당연히 분실물은 주인을 찾아줘야죠. 더욱이 제 차 손님이신데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어허, 요즘도 저런 기사분이 다 계시네, 공항버스 운전하시는 분이라고 했죠?”

“어르신은 여기 사인해주시고, 저기 기사님도 인적사항이라도 알려 주셔야죠?”

민원실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뒤로 하고 서둘러 버스에 올랐습니다. 룸미러로 제 자신의 얼굴을 다시 한 번 올려다보았습니다.

불과 몇십분 전만 해도 저 조그만 룸미러조차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저 뿐 아니라, 세상 누구도 저를 쳐다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 간절했던 바람의 손에 제가 욕심내서는 안 될 돈봉투가 들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허나 지금은 세상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저는 제 자신을 올려봅니다. 고속도로의 하늘과 저 멀리 보이는 바다가 어찌 그리 푸르고, 맑던지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조금 전 상상했던 일들, 일순간에 만족하게 할 순 없지만, 한 달에 한 가지씩만이라도 지키겠노라고.

우선 다음 달 월급을 타면 어머님 난방기름 2드럼부터 채워 드리려고요. 날씨가 추워서 또 퇴근할 때 아들 또래의 달구지와 씌름하겠지만, 기분만은 2,000만 원이 아니라 2억 원 이상을 번듯 합니다.

정심(正心), 정행(正行), 정언(正言), 즉 바른 마음, 바른 행동, 바른 말. 부끄럽지만, 저희 집 가훈입니다. ♥



칭찬의 힘

● 글_김홍준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저는 가방끈이 짧아서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라디오에서나 공중파에서 어느 것이 옳은 말이라고 하면 잘 기억하는 편이고, 운전을 하면서 실천을 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개인택시를 운행할 때 처음에는 손님들과 몸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날은 공치ಗೆ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정신건강에도 안 좋고, 이것은 아니다 싶어 나만의 비장의 무기를 빼들었지요.

손님을 비하하지 말고 높여주고, 무조건 칭찬하자.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담고 막상 실천하려니 힘들더군요. 손님이 세상살이 힘들어 핫술을 드시면 만만한 기사가 분풀이 대상인지라 마구 욕두문자를 쏟아냅니다.

그럴 때면 저도 감정이 있는 사람인지라 참을 인(忍) 자를 되새기며 욕두문자가 득한 차를 세워 문짝을 열어 다 날려 보내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지요. 그래도 차 안 가득 맑은 공기를 환기시키면 조금 정화하고, 조금 정신일도를 하다 보니 노후가 생기더군요. 나이트 사람이 술 마시고 욕두문자를 입 밖으로 내 놓으면 높여 주고, 칭찬하고를 학습하지요.

“사장님, 요사이 불경기에 핫술을 드셨네요? 외모로 풍기는 모습으로는 전혀 욕두문자 쓸 분이 아닌데 세태가 사장님을 욕두문자 쓰게 만드네요. 그래도 어쩔니까. 힘내세요! 제가 변변찮아 사장님은 못 도와드리고 택시비는 제가 서비스하지요,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잘 살아가는데, 사장님 같은 분이야 마음만 잡으면 그만

한 외모에, 풍채에 더 잘 사시겠지요. 훗술이나 잡수시고 육두문자를 입 밖으로 내놓으시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러면 취중에도 열이면 아홉은 자기가 사장이고 싶고, 자기가 잘나 보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지라 택시기사한테만이라도 자존심을 찾고 싶어서인지 육두문자를 안 쓰고, 저한테 말투가 틀려지며, 내 수입을 걱정하며, 힘든 세태를 한탄하며, 거리가 멀면 푸념 반 한탄 반하다가 택시비에 톱도 주고 열심히 살자며 내립니다.

또 특히 여학생들 말이 거칠 때도 뒤를 돌아보며 귀여운 구석이 없어도 “학생은 얼굴은 너무나 예쁜데 집에 치약이 나쁜가. 어쨌 입에서는 말이 거칠게 나오니? 얼굴 예쁜 만큼 노력해 보렴” 하면 얼굴이 발개져서 “죄송해요, 노력할게요” 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아저씨가 뭘데요?” 하고 육두문자 직전에 요급내고 도망가는 아이도 있습니다.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의 좀 젊은 사람이 만취하면 시비 걸고 횡설수설 육두문자 나오면 제가 만취 정도에 따라 선생님이로 만들어 드립니다.

“교편을 잡으시나 보죠? 요즘 애들 말 잘 안 듣죠? 제가 택시를 태워 봐도 말 잘 안 들어요, 그러니 선생님 속은 오죽 하시겠어요.”

그 멘트가 나가면 우선 조용해집니다. 택시기사는 사람을 잘 본다는 선입견 때문에 우선 자기가 선생님이든 아니든 선생님이 되고 싶은 거겠죠. 요새 젊은 사람 대학 안 나온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취중에 제가 선생님 만들어 드리면 시비도, 육두문자도 찾아들고 조용해집니다.

교편과 관련된 종사자면 취중에도 애환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차할 때까지는 조용해집니다. 그런 손님은 하차하며 “기사님 기분 상하셨죠?” 합니다. 그럼 답례로 택시비도 덜 받고 아이들 과자라도 사주라며 몇 푼 드리면 탈 때와는 아주 딴사람이 됩니다.

아주 아닌 몇몇을 제외하고는요, 헤어지며 덕담 몇 마디 나누며 헤어집니다. 마음 한 번 바꿨을 뿐인데 얻는 것은 배가 되고 살맛나는 세상이 되네요. ♥



무기수의 자식사랑

● 글_애청자

저는 교도관입니다. 저희 교도소에서 있었던 특별한 일을 소개할게요. 지난해 9월 중순, 부산교도소 홈페이지 ‘기관장과의 대화’ 코너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29세인 형이 만성신부전증인데, 당장 신장이식을 하지 않는다면 평생 혈액투석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적합성검사를 했으나 결과가 일치하지 않아 고민 끝에 무기수로 수형생활 중인 아버지(55세)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고 도움을 청하는 글이었습시다.

부산교도소에서는 도움을 주기 위해 법률적 검토를 하였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정당국으로서는 수감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이를 위한 조치를 취할 법률상의 의무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10월초, 구미에서 형제가 다니는 회사 사장이 부산교도소의 도움을 받기를 청하며 방문했습니다. 형제는 어릴 때 부모가 이혼한 후 할머니 집에서 살았고, 중·고교에 다니면서 무척 힘들었으며, 아버지가 무기수로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2년 전에 알았다고 합니다. 형제는 어릴 때 자상하고 다정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무기수라고 하니 상처가 컸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접견하는 순간, 울면서 미안하다고 계속 되뇌는 아버지의 들쭉이는 어깨를 보며 아버지를 향한 미움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형의 병을 알게 된 이후 교도소 안의 아버지 역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형은 7년, 동생은 5년째 형제가 함께 일하고 있는데, 착실하고 성실할 뿐만 아니라 우애가

깊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다보니 ‘그래, 사람을 살리는, 더군다나 한 사람의 인생을 무척 임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판단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법이 사람목숨보다 중요하던 말인가? 어차피 법도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던가? 그러면 지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우선 사례를 찾아보기로 했는데, 교정기관의 수용자가 장기이식한 일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2002년 이전의 사례는 거의 없고, 2003년 이후 청송·대구·성동·여주 등 네다섯 곳에서 이식사례가 있었습니다. 기존사례가 있었던 것만으로도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례자들은 2, 3, 4, 5년 등의 단기수형자들이었고, 40퍼센트 이상 수행생활을 했던 사람들로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간이식이었습니다. 4개월 정도의 형 집행정지 기간을 주어 재활치료 후 재 입소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무기수에 수행생활 7년 정도인 수행자가 가능성이 있을까 의문이었습니다. 일단 신장이식이 적합한지 검사라도 받게 해달라고 동생이 법무부에 진정을 했고, 아들과 무기수인 아버지가 처음으로 접견이 아닌 임상검사실에서 만났습니다.

십수년 만에 처음으로 사회에서 만난 상황, 수감과 포승을 찬 아버지를 바라보는 큰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으며, 부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감과 포승에 묶여 자식을 위해서 혈액검사·소변검사·심전도검사·X선 촬영 등을 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아들은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그 후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형제와 저는 탄원서를 쓰며 수술을 지원했습니다. 수술을 하려면 ‘형 집행정지’가 필요해서였습니다.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그 일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수술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식수술을 하던 지난해 11월 24일 전날, 무기수인 아버지의 병실로 들어갔더니, 내 손을 잡고 몇 번이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아들은 그날 잠을 잘못 이루었대요. 아버지에 대한 자책, 수술에 대한 부담, 수술 후의 걱정 등



마음이 복잡했을 겁니다.

수술은 거의 8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아버지는 얼굴이 밝았습니다. 아버지의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에 가슴이 저러왔습니다. 병실로 옮긴 큰아들 역시 얼굴이 좋아 보였으나 아직까지 마음은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큰아들에게 이번 수술이 단순히 아버지의 신장을 이식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있는 아버지의 뜨거운 심장을 가슴 속에 품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제 형제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퇴원하여 다시 수감될 것입니다. 잘 하면 10여 년이 지나 수감생활을 마치는 어느 날 부자지간이 다시 만나겠지요. 그때는 세 부자의 가슴에 더 뜨거운 사랑이 가득할 거라 믿습니다. ♥



종점 아줌마

● 글_김숙현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아 주머니 일어나세요. 종점이에요.”

누군가 어깨를 툭툭 쳤다. 깜짝 놀라 주위를 돌아보았다. 종점이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버스에서 내렸다.

다시 차를 갈아타려 지하도를 내려가며 ‘어머 내가 왜 이래 미쳤어. 다시 일산으로 갈 뻔했네. 누군지 고맙다’ 하다가 ‘그런데 작은 소리로 말해주지 어휴 창피해’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저도 종점에서 한 번은 둘러보고 자고 있는 분 어깨를 조용히 툭툭 쳐줍니다.

저는 일산에서 새벽에 서울로 출근하는 50대 아줌마입니다. 전에는 차에서 자는 사람들을 보기 흉하다고, 교양 없다고 눈살 찌푸리며 보던 얌전하고 예의바른 여자들이었습니다.

일산에서 출퇴근하는 버스 안에서 이어폰을 끼고 학생이나 아저씨, 아가씨 모두 잠을 자면서 와도 저는 눈을 뜰망거리며 창밖을 내다 봤는데, 어느새 저도 분위기에 젖어 이젠 같이 자다 못해 내릴 때도 못 내릴 뻔합니다.

친구 남편의 별명이 종점아저씨입니다. 어떤 생각으로 차를 타기에 종점까지 가 나며 놀러대던 제가 작년엔 영화 10도에 눈까지 평평 내리고 세찬 바람까지 불던 날 잔업하고 영등포서 막차 타니 몸이 노곤해져 잠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이제 우리 집 네 정거장 남았다’ 까지 생각했는데, 갑자기 “아주머니, 내리세요” 하며 기사분이 제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어머나!” 깜짝 놀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인적 없는 시골, 밤 12시가 넘어 나가는 차도 이미 끊겼습니다. 터덜터덜 걸어가니 코가 시리고, 세찬 눈보라에 반짝거리는 빙판을 점퍼 모자를 뒤집어쓰고 조심조심 걸으며 “어휴! 바보 조금만 정신을 차렸으면 이런 고생 안 하지” 하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들이 군대에 갈 때, 아들 친구가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주며 “어머니, 아들이 필요할 때 전화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갈게요” 한 것이 생각나 ‘전화를 걸까? 자고 있을 텐데, 그 녀석도 피곤할 텐데’ 또 친구 부부가 “늦으면 전화해. 우리 집에서 자고 출근하면 되지” 하던 말도 생각났지만 이 시간에 나 편하자고 아침에 출근할 식구들을 다 깨우는 건 안 되지 싶었습니다.

손발이 시리고, 뛰다 걷다 하는데 가끔 어둠속에 자가용이 지나갔습니다. ‘손들고 태워 달라면 놀라겠지’ 아니면 ‘태우고 가다 아직도 예쁘단 소릴 듣는데 안 내려주고 팔아버리면 어쩐지. 마늘 까는 데라도 맡아’ 하고 별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30분을 건다보니 저 멀리 우리 동네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야!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좀 더 속력을 내어 걷는데도 그 아파트는 가도 가도 그 자리에 있고, 이젠 코까지 떨어질 듯 아려오고 “잠깐 자고 이게 된 고생이랍. 바보 멍청이” 하며 중얼거리며 집에 도착하니 새벽 1시 40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니 따뜻하고 포근하고 행복했습니다. 창피한 오늘 이 일은 절대 누구에게도 말 하지 말자. 혼자 바보처럼 하하하 웃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도 있지요. 그때도 종점에 내렸는데, 대리운전하는 남자분이 다가와 택시 불러 반씩 내고 나가자고 해서 쉽게 나왔어요. 이젠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데, 이력이 생겨서인지 잠깐 잠들었다가도 내리기 전 정류장에서 안내방송이 들리면 눈이 떠집니다.

이상은 지금 고생이 훗날 행복으로 바뀌지길 희망하며 하루 다섯 시간씩 자면서 부지런하게 살고 있는 50대 아줌마의 창피한 고백이었습니다. ♥



Letter 13

사장님과 임금체불

● 글_조혜숙 | 충북 충주시 연수동

저는 한 회사를 10년 넘게 근무 하였습니다. 마흔이 다 되어 한 결혼이지만 쉽게 회사를 그만둘 수가 없었지요. IMF도 거뜬히 이겨냈는데, ‘어렵다, 어렵다’ 한 경제가 지난해 8월부터 몸소 느껴지기 시작했지요. 전 이 회사에서 외환관리와 전반적인 회사 관리를 맡고 있어서 쉽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출하기 위해 빌린 무역금융이자의 금리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더니, 지난해 8월에는 10퍼센트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출상환 날짜에 맞추는 것조차 힘들었고, 거래은행 중 한 은행에서는 단 하루조차 연장해주지 않았습니다.

직원들도 2005년에 내보낸 상태고, 사장님과 저 그리고 남자직원 셋이서 근근이 버텨오고 있었지요.

9월쯤 되고부터는 사장님께서 손을 들었습니다. 월급을 못 받은 지 일 년이 넘었지만 사장님을 원망하진 않았습니다. 은행이자 낼 돈으로 차라리 월급 좀 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었지요. 처음부터 사장님과 한술밥 먹으며 일했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워지겠지요. 노동부에 가서 체납금 신청을 하는데, 사장님과 직원들을 같은 날짜에 부르더군요. 저희가 못 받은 급여의 금액이 맞는지 또 사실을 인정하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모두 인정하셨고요.

저희에게 묻더군요, “사장님을 형사 고발하겠냐”고요. 둘 다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더라도 처벌을 원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둘 다 “돈을 못 받아도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처벌을 원하면 사장님이 형사고발을 면치 못하기 때문이었죠. 직원 둘의 체납금이 4,000만 원 이상이었으니, 조사하는 조서관이 못 미더워하였습니다. 사장님에게 따로 담배나 피우자고 데리고 나갔습니다.

다른쪽에서는 사장과 직원이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도 못 받으면 억울하겠죠.

조서관의 말이 저희처럼 이상한 회사는 처음 본다고 하였습니다. 부도가 난 마당에 서로 위해준다고요. 어찌겠습니까? 그런다고 돈이 나오겠습니까? 사장님도 먹고 살아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긴 시간을 조사를 마치고 셋이 소주 한 잔 했습니다. 유독 바람도 많이 불고 추웠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해집니다. 희망이라는 것이 있다면 좀 버텨 볼 텐데 어디 가서 이놈을 잡아볼까요. ♥

내 사랑 장미

::그림_심경희

※ 이 만화는 김혜선 씨(부산시 진구 당감동)가 보내주신 사연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동생 열여섯에 내 딸 장미는 나에게도 애인이고 친구같은 존재이다.



이발관을 한 지 35년, 망우동 면일초등학교 앞 같은 자리에서 손님을 맞은 지는 27년인
변재열·전양순 부부는 깎아주고 털어주고 면도해주며 손님들의 새해를 축하했다.

이발하고 새 마음으로 맞는 새해

서울 망우동 중앙이발관 | 변재열·전양순 부부



2009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를 여러 번 맞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새 마음. 머리 단정히 깎고, 목욕 깨끗이 하고, 새해를 온 가슴으로 뜨겁게 안고 싶다.

서울 중랑구 망우동 중앙이발관에도 새해를 단정히 맞이하려는 손님들이 많이 다녀가셨다. 중앙이발관은 늘 처음처럼 깨끗한 모습으로 푸른 화분까지 줄지어 서서 손님을 맞았다. 이발관을 한 지 35년, 망우동 면일초등학교 앞 같은 자리에서 손님을 맞은 지는 27년인 변재열·전양순 부부는 깎아주고 털어주고 면도해주며 손님들의 새해를 축하했다. 우리도 새해는 이들처럼 맞고 싶다. 단정하게, 깨끗하게 그리고 다정하게.

중앙이발관을 들어서니, 온기가 감췄다. 정겨운 알루미늄 연통과 연탄난로가 보이고 '심정사달(心情事達)' 족자가 제일 먼저 눈에 띈다. 그래, 마음을 깨끗이 하면 도달하지 못할 곳이 없겠지. 이들 부부가 바라보고 가는 인생길이 그 길인가 싶다.

가끔 여성시대 앞으로 단정한 편지를 보내는 이 부부는 매일 매일이 평화롭다. 이번 겨울에 여성시대 앞으로 보낸 편지에는, 손님 이야기를 적었다. 오래 일을 못하다가 일을 다시 시작한 고객이 그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이 부부에게 음료수 한 병을 돌린 일. 30여 년 단골인 그분은 70세가 가까운 목수인데, 늘 "나는 아직 일할 수 있는데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소연하셨다. 그런데 열흘 이상할 일거리가 생기니, 연장을 잡은 손에 힘이 절로 생기더라고 기뻐하셨다. 그 기쁨 파장이 주인 부부에게도 퍼져서 행복해졌단다. 이분뿐 아니라 고객이 대부분 오랫동안 얼굴을 대한 분들이라, 일터며 집안 사정을 잘 아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한 자리에서 오래 가게를 열다보면, 어느 손님이 어느 때쯤 오신다는 걸 하는데, 그 손님이 안 오실 때가 있어요. ‘그 손님이 오실 때가 되었는데 왜 안 오실 까?’ 우리 둘이 궁금해하지요. 그렇게 두세 달 지나면 나중에 건너건너 듣게 되지요. 편찮으시다거나 심지어 돌아가신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마음이 좀 그래요. 저 희끼리라도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과 추억을 나눈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지요.”

사진을 찍자고 하니, 부부는 자연스럽게 다정한 자세가 나온다.

“너무 다정하면 다른 분들이 질투하니까, 감싸안은 팔은 그냥 내리시죠. 그런데 이 연배의 부부가 그런 자세 나오기는 진짜 어려운데...”

사진작가가 감탄을 한다.



부부는 1971년에 결혼했는데, 전양순 씨가 스물세 살 때 양품점에서 일할 때, 변재열 씨가 장갑을 사러 손님으로 왔다. 전양순 아가 씨에게 첫눈에 반한 변재열 씨는 멋있어 보이려고 늘 문학책을 끼고 다녔다.

“이이는 속을 찌른 적이 없어요. 속 찌일 시간이 없었어요. 술도 담배도 원래 안 했고, 조용하고, 이 양반 머리는 내가 보름에 한 번씩 손질해주죠. 드라이는 매일 손수 하고, 이제는 머리 벗겨진 거 봐도 측은하고, 자는 거 봐도 안쓰럽고, 나이가 부부에 대한 그런 마음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한때 이발관은 너무 바빴다. 새

벽 서너 시에도 손님이 가게 문 두드리면 일을 시작했고, 통행금지 사이렌이 불어 야문을 닫을 수 있었다. 제 시간에 밥을 먹는 것도 어려웠다. 면도하는 아가씨, 드라이하는 청년, 머리 감기는 청년까지 일하는 사람도 여럿이었다. 그런데 여직원이 자꾸 일을 빠졌고, 남편이 부탁했다.

“우리 석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당신이 도와줘요.”

그래서 아내가 일을 배웠는데, 그때 아들이 서너 살이나 되었을까. 그때는 손님들이 미스인 줄 알고 팁도 주고 그러더라. 그러다가 아들을 데리고 왔더니, 그다



● “수고했어요, 오늘도 무사히 잘 보냈군요. 내일도 오늘만큼 건강하게 열심히 건강하게 일합니다.”



음부터는 틈이 삭사라지더라.

삼사 년이면 끝나겠지 했던 일은 계속 이어져 이제 손주가 초등학생이 되고 말았다. 요가도 배우고 싶고, 붓글씨도 배우고 싶은 아쉬움은 있지만 생각을 바꾸었다. 이 일터가 없었다면, 건강하지 않았다면, 손님들을 통해 인생을 배우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고 허전했을까. 그리 생각하니 일이 고맙고 인생을 가르쳐주는 손님들이 고맙다.

“입춘대길 그 붓글씨? 내가 썼죠. 우리 아버지가 서당훈장님이어서 나도 학동들하고 같이 《천자문》하고 《명심보감》은 떼었어요. 학동이 서른 명은 되었어요. 오동산 그들이 30리 간다고,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살려고 하지요. 그러면 자식은 그대로 또 보고 배우는 거고. 외아들과 외며느리가 착하고 잘해요. 우리는 노는 날은 여행을 자주 가요. 멀리 가야 여행

인가. 한나절 가도 좋고, 하룻밤 가도 좋지. 이 양반이 낚시를 좋아하거든. 나도 같이 가서 이 양반이 낚시대 드리우고 있으면 그 주변에서 쓰레기 모아 태우고, 고기 잡으면 튀김도 해주고, 주변 구경하고 떠오르는 생각을 메모도 하고 그래요.”

중양이발관은 문 열고 닫는 시각이 정확하다. 아침 7시 반에 문을 열고, 저녁 8시 반에 문을 닫는다. 일이 끝나고 나면 부부는 서로에게 인사를 한다.

“수고했어요, 오늘도 무사히 잘 보냈군요. 내일도 오늘만큼만 열심히 건강하게 일합시다.”

시아머니 모시고 7남매의 맏이로 살아온 부부는 하루종일 같이 일하고, 같이 밥 지어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퇴근한다. 어제 같은 오늘에 감사하고, 오늘 같은 내일이 이어지길 소망한다.

전양순 씨의 편지 구절에 여성시대는 색연필로 줄을 친다. 새해에 갖고 싶은 자세로 마음에 새기고 싶어서.

“이제는 화가 나는 일도 분노하는 일도 자제할 수 있는 세월 앞에 와 있네요. 내일이란 단어는 무수한 물음표와 수수께끼를 제공하지요. 미래는 물려받는 게 아니라 내가 관리하는 것이니, 우리 부부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우리 일터를 가꿀 것이며, 함께 일하고 함께 건강을 염려하며 노년의 삶을 아름답게 가꿀 것입니다. 모든 이가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



행복을
찾는 사람들

끊임없는
연구개발이 돋보
이는 특수시력
교정 전문안과

· 기업은행 테헤란로지점 고객
GS안과 김무연 대표원장

“받은 땅에 붙이고 살되 눈은 별을 보라는 말
이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별을 향해 가고 있
습니다. 환자들에게 좋은 시력을 되찾아
주는 병원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GS안과 김무연 대표원장



GS안과는 지난 2005년 11월 강남새빛안과로 개원했다. 당시는 일반적인 시력 교정과 백내장 수술을 위주로 운영했지만, 지난해 4월 GS안과로 이름을 바꾸면서 특수시력교정 전문병원으로 거듭났다. 일반적인 시력교정 수술은 물론 노안, 초고도근시, 백내장과 노안 동시 교정 기술, 각종 수술 부작용에 대한 재수술과 같은 특수시력교정 분야를 특화해 눈길을 끈다.

GS안과의 김무연 대표원장이 개원 초기부터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분야는 노안과 초고도근시였다. 이는 그동안 안과에서 끊임없는 연구개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했던 분야였다. 노안에 있어 지금까지 독보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수술법이 없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GS안과가 병원 내에 설립한 ‘아사비전 노안연구센터’는 단연 돋보인다.

“센터는 스벤 리 박사와 에크하르트 슈뢰더 박사의 협력을 받아 만들었습니다. 이 분들은 노안수술에 필요한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분들로 유명합니다. 아사비전은 워싱턴대학과 코넬대학을 비롯해 런던·헝가리·남아공 등 전 대륙에 약 7개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리서치기관입니다. 동일한 과제를 가지고 이를 연구·발표·토론하는 글로벌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 병원에서도 노안수술을 좀 더 강화하고 본격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초고도근시에 있어서도 특화된 경쟁력을 자랑한다. 초고도근시의 경우 시력교정 수술은 눈 속에 렌즈를 넣는 렌즈삽입술 외에 특별한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눈 속에 렌즈를 삽입하는 수술은 늘 1~2%의 감염 가능성을 가지고 있게 마련이다.



GS안과를 찾은 기업은행 테헤란로지점의 정환수 지행장(맨 왼쪽).



GS안과는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뛰어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감염 시에는 환자가 너무 많은 걸 잃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고, 꾸준한 연구개발은 결국 만족할만한 성과로 이어졌다. GS안과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초고도근시를 위한 특별한 라섹술 프

로그램을 개발한 것. 이 시술법은 보통의 시력 교정수술인 라섹 정도의 부담밖에 없어 훨씬 안전하다는 것이 김 원장의 설명이다. 기존 시술법으로는 환자가 -8디옵터 이상이면 렌즈를 넣는 방법밖에 없었지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15디옵터까지 수술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일반적인 시력교정수술에 머무르지 않고 다음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축적해감에 따라 GS안과를 찾는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연령대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다. 보통의 시력교정수술병원

의 경우 20~30대 환자의 비중이 높은 데 반해 GS안과는 20대부터 60대까지 환자층이 매우 폭넓은 것이 특징. 아울러 외국인 환자의 비중도 높다. 병원 내에서 중국어·스페인어·독일어·영어·일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시력교정 안과와 전문화된 기관을 구분하는 순위 방법 중 하나는 인트라레이저 시스템 도입 여부다. 과거의 라식 수술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고는 수술 시 사용하는 칼날에 의해 발생했는데, 이러한 기계식 방법을 대체한 것이 바로 인트라레이저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고급 시스템으로 꼽히는 것이 아이아식인데, GS안과는 이를 국내에 도입한 1세대다. 그만큼 기술과 시설 투자에 아낌이 없다

는 뜻이다.

“저희 병원은 R&D투자 비중이 무척 높습니다.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기 때문에 다른 개원의에서는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얻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학회활동은 물론 세계적인 스탠다드에 맞춰가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GS안과는 지난해 유럽백내장굴절수술학회(ESCRC)에 두 개의 논문을 발표했고, 오는 4월에는 미국백내장굴절수술학회(ASCRS)에 초고도근시·노안 등으로 네 개의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내 어느 대학에서도 이 정도 수준의 논문을 발표하는 곳이 없다고 하니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와 노력의 수준을 짐작하고도 남을 터.

“발은 땅에 붙이고 살되 눈은 별을 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좋은 시력을 되찾아주는 병원이 첫 번째 목표라면, 국제적인 네트워킹을 갖춰 일본·중국·동남아를 아우르는 아시아지역의 허브 병원으로 자리 매김하는 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 다른 병원에 비해서 기술력과 인적 자원의 수준이 높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친절한 서비스를 뛰어넘어 한



GS안과는 직원들에게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단계 높은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테헤란로지점의 정환수 지행장은 “원장님을 비롯해 모든 직원들이 무척 성실하고 믿음직스럽다”고 칭찬하며 “올 한 해 많은 분들이 시력을 되찾아서 밝고 희망찬 나날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무연 대표원장은 “직원들에게 확고한 비전을 심어주고 끝까지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경영자로서 자신의 역할이라고 강조한다.

“우리 직원들이 GS안과에 몸담았다는 사실을 뿌듯하게 생각하고, 가족과 자녀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직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무연 원장은 GS안과가 아직까지는 바닥을 다지고 기술을 축적하는 단계라고 겸손하게 말한다. 하지만 단기적인 이익 실현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큰 비전을 가지고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병원이라면 이미 그 도약의 날개를 단 것이 아닐까. 하루빨리 그 날개를 활짝 펴고 아시안 허브병원으로 아름답게 날아오를 날을 기대해본다. ♥

● 글_오인숙(자유기고가) | 사진_주병수

그의 성공에는 이유가 있다

김무연 대표원장의 성공 노하우

- ✦ **노력하는 재능을 길러라** : 특별한 재능은 없지만 노력하는 재능이 있다. 레지던트 시절 경제적·시간적 부담에도 학위를 포기하지 않았고, 국내에서 개원하기 전에 중국이라는 신흥시장에서 세계 유수의 병원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등 늘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 ✦ **R&D 투자에 집중하라** : 무모할 정도로 R&D에 투자를 많이 한다. 아사비전 노안연구센터 설립이나 인트라레이저 도입 등은 여유가 많아서 한 것이 결코 아니다. 지금 당장의 이익 실현보다는 다음 과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 ✦ **병원에도 이념과 비전이 필요하다** :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왜 하느냐’를 생각해야 한다. 아시안 허브병원이 되는 것, 바른 병원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이념이다. 이것이 조직의 건전성을 유지시켜 준다.



“서민살림까지 이렇게 생각해줄지 몰랐어요!”

소액에도 우대 금리에, 교박교박 예금하면 대출이자 감면혜택까지
작은 이웃들의 따뜻한 희망 - 서민섬김통장 • 대출



“힘들 때 옆에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죠!”

소상공인 3천억원, 미래성장기업 7천억원 등 총 1조원 지원
한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 중소기업희망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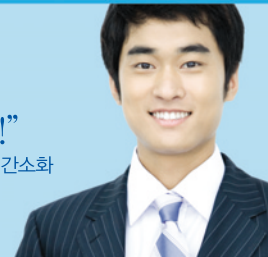


대출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홍길동

“저는 제 회사에 저를 취직시켰습니다!”

최저금리 적용, 5년 이상 장기 운용, 신용보증으로 대출절차 간소화
내일의 성장동력을 키우는 - 청년창업자대출



“1달러가 우리 경제 100만불 짜리 희망된대요!”

시중은행 대비 최고수준 금리 제공, 환전시 환율우대 혜택
경제 강국을 위해 내가 먼저 - 외화모으기통장



서민을, 기업을, 청년을-
‘대한민국 경제’를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의 든든한 동반자 IBK기업은행은 대한민국의 저력을 믿습니다.

I Believe Korea



세월은 흘러도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혼수예단의 명가 박홍근홈패션”



동사의 브랜드인 ‘박홍근’은 국내 최초의 디자이너 브랜드라는 자부심과 국내 최고의 침구브랜드라는 평가에 걸맞게 차별화된 소재와 디자인으로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자타가 공인하는 홈패션의 대표브랜드다.

박홍근 브랜드의 디자인 기본 콘셉트는 ‘럭셔리와 클래식’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디자인으로는 클래식 계열의 다양한 컬러와 고급스럽고 회화적인 패턴과 자수문양을 적극 활용한 섬세한 텍스처의 디자인, 다양한 침실 분위기를 연출하는 클래식 패브릭 디자인 그리고 로맨틱하고 싱그러운 침실 분위기를 주는 내추럴한 느낌의 플라워 프린트 패턴 디자인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디자인을 바탕으로 생산된 ‘아나이스’·‘마르시아’·‘황진이’·‘마살’ 등과 같은 제품은 고객들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인기 상품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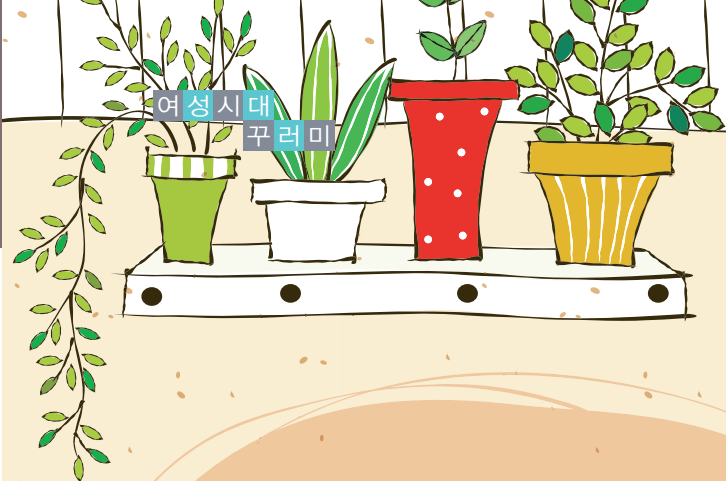
우리나라 최초의 홈패션 디자이너인 박홍근 선생님의 의해 1979년에 설립된 (주)박홍근홈패션은 침구에 패션개념과 디자인을 도입하여 침실을 단순히 수면을 취하는 장소가 아닌 ‘편안하고 아름다운 생활공간’으로 변화시켰다.

(주)박홍근홈패션은 지난 30년간 새로운 생활 문화를 창조한다는 사명감으로 오로지 침구 제품의 생산과 판매에 매진한 결과 고객들로부터 ‘혼수예단의 명가’라는 명성을 얻고 있는 우리나라 홈패션업계의 선두주자로 자리를 잡고 있다.

- 기업은행 성수동기업금융지점 거래기업
- 박홍근홈패션 문의전화 02-3409-0092

기업은행에서 추천하는 우량 중소기업을 소개하는 코너로, 위촉된 중소기업의 경기 활성화에 다소나마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성시대
꾸러미



임신에서 출산, 육아, 교육에 이르기까지 우리 아이를 기르는 이야기 (출산에서 교실까지), 남성들의 땀과 인내 그리고 우정을 이야기하는 <장용의 단결! 필승! 충성>, 잊을 수 없는 그 시절, 잊을 수 없는 사랑 이야기 (사랑의 계절)을 함께 만나보세요.

매주 월요일 <출산에서 교실까지>, 목요일 <장용의 단결! 필승! 충성>, 토요일 <사랑의 계절>이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 꾸러미 하나
출산에서 교실까지
가슴으로 낳은 아이
정금희 님
- 꾸러미 둘
장용의 단결충
내 생명의 은인은?
박현희 님
- 꾸러미 셋
사랑의 계절
나를 좋아했다는 킹카
김미영 님

1 꾸러미 하나
출산에서
교실까지

가슴으로 낳은 아이



● 글_정금희 | 경북 봉화군 법전면

1993년 3월, 딸아이는 태어난 생년월일과 성씨가 적힌 쪽지 하나, 기저귀 몇 개... 그렇게 우리에게 왔습니다. 태어난 지 한 달 만의 일입니다. 품에 안은 딸아이는 밤낮없이 잘 자고, 잘 먹어 마흔여섯 닳듯이 엄마를 힘들지 않게 해주느라 잘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장애?’ 하는 마음에 엉덩이를 꼬집어보면 ‘으양’ 하고 우렁찬 울음을 토해내 안심을 했지요.

백일이 지나 슈퍼마켓에 갈 때, 혹은 모임에 갈 때 아이를 업고 가면 모두들 한 마디씩 했습니다.

“어이구, 왕장군일세.”

“눅둥이 귀하다고 엄마는 안 먹고 애만 먹었나?”

딸아이는 튼실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어쩌다 감기 기운이 있어서 열이 내리지 않으면 친정엄마가 쓰던 비법인 소주를 솜에 묻혀서 배를 닦아주고 톡톡토닥 두드려 주면 금방 쿨쿨 잠이 들곤 했지요. 위낙 옛날이야기를 좋아해 저녁마다 한 가지씩 듣지 않으면 잠들지 못하던 딸아이는 요즈음도 가끔 베개를 안고 애교를 부립니다.

“엄마, 옛날이야기 하나만 응?”

“어이구, 귀찮아. 그라고 전부다 아는 이야긴데...”

“엄마- 아는 것도 괜찮거든요. 하나만...”

결국 제가 지고 말지요. 어느 날은 일을 다녀와 피곤한 몸으로 “옛날에 조금 장수 형제가...” 하다가 쿨쿨 잠이 들고 말았지요. 다음 날 아침 딸아이가 그러

더군요.

“엄마, 다음부터는 얘기해달라고 안 그럴게. 엄마가 자면서 ‘이야, 이야’ 해서 마음이 아파.”

아마 고단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면서 ‘이야’ 하며, 꿈꿨나 봅니다. 그래도 일주일이 안 넘어갑니다. 꼭 엄마 방에 와선 종알종알 어찌고저찌고, 저는 딸아이 이야기를 아득히 귓가로 들으며 잠이 들곤 합니다. 딸아이요? 그래 놓고 서는 자기 방에 가서 잡니다.

신기한 건 같이 살면 닳는다더니 정말인가 봐요. 옷을 벗어서 아무 데나 뒹굴 집어던지는 것, 양말 홀랑 까뒤집어 벗어놓는 것, 특히 한겨울 추울 때나 한여름



더울 때도 이불 두께의 차이만 있지 얼굴까지 뒤집어쓰고 무릎 아래 부분은 밖으로 내놓는 건 제 아빠를 닮았습니다.

식성은 엄마를 꼭 닮았어요. 아이들은 생선회를 잘 안 먹는데, 갯잎에 초고추장 듬뿍 찍어 생선회를 올려 먹는 걸 좋아합니다. 국수에 식초를 넣어서 먹기, 신 것을 좋아하는 엄마를 꼭 닮았어요.

아이를 양육한다는 것이 엄청 힘든 일이지만 아이로 인해 더 많이 행복하고 더 많이 즐겁고... 이런 것이 축복인가 싶기도 합니다.

요즈음 딸이기가 부쩍 외모에 관심을 갖습니다. 학교에 가기 전에 거울 앞에서 머리를 묶었다가 풀었다, 머리핀도 이것 했다가 저것 했다, 치마를 입었다가 바지를 입었다... 며칠 전에는 가방에서 수학시험지가 나왔는데... 세상에! 30점이다 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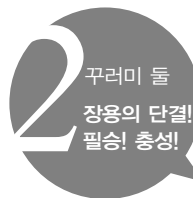
“아, 이게 뭐야. 왜 이러냐? 반장이라는 아가씨가?”

“헤헤헤, 엄마, 그럴 때도 있지 뭐.”

한 대 쥐어박고 싶었지만 ‘난 열 살 때 가끔씩 오줌을 싸서 키를 뒤집어쓰고 소금을 얻으려 다녔잖아? 지금 30점이면 나중엔 60점, 그 다음엔 100점도 가능하겠지’ 하며 억지로 참습니다.

책임감도 강하고, 맡은 일은 꼭 해내는 근성도 강하거든요. 요즈음 살을 빼려고 커다란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오가는 딸이기를 보면 현실은 비록 어렵고 녀석하긴 않지만 딸이 덕분에 ‘나는 참 부자구나, 행복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느낍니다.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아이의 마음이, 아이의 생각이 그대로 엄마에게 전해질 땐, ‘아! 이런 것이 엄마의 마음이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이제 10년. 앞으로 10년 후엔 어떤 아이로 아니 어떤 아가씨로 자랄지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반듯하게 자라서 훌륭한 사회구성원이 되어 있을 거라는 것ですよ. ♥



내 생명의 은인은?

● 글_박현희 | 경남 진해시 부흥동

저는 해군에 복무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바다를 지키는 용맹하고 멋진 바다의 사나이입니다. 하지만 배를 타고 바다 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처음 배에 승선할 때, 추운 겨울바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배를 처음 타게 되면 멀미로 많은 고생을 합니다. 유독 멀미를 잘 하는 저는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함교에서 당직을 설 때의 일입니다. 함교는 배에서 가장 높은 지휘권을 가진 함장님이 함께 근무하는 곳이지요. 엄숙하고도 정숙해야 할 그곳에서 저는 멀미로 파전(구토) 5판이나 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명 ‘멀미 게이지’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지요. 그래서 겨울철 파도가 높을 때면 저는 모든 과업에서 열외되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토해 항상 뱃속을 비우고 몸을 움직일 힘도 없는, 정말 눈만 떠 있는 송장이었습니다.

그날도 침대에만 누워 있다 보니 신선한 공기가 마시고 싶어 없는 힘을 모아 침대에서 내려와 외부 갑판으로 나가기 위해 계단을 한 칸씩 올라갔습니다. 야간이라 사람들도 다 자고 당직자들만 깨어 있어 배 안은 한적했습니다.

파도가 높은 날에는 실족을 방지하기 위해 갑판으로 나가는 문은 완전 폐쇄합니다. 외부로 나가는 문마다 줄로 묶어 놓아 한눈에 봐도 나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살 수 있을 것 같아 단단히 묶어 둔 줄을 초능력을 발휘해 풀고는 함수 갑판으로 나와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침 순찰을 돌던 당직자가 외부로 통하는 문이 열려 있는 걸 보고 “도대체 누가 이 문을 열어둔 거야” 하며 다시 문을 닫고 폐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 돼!’ 하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줄을 푸느라 힘을 다 소진한 나머지 재미만한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습

니다.

그 순간 저 머릿속에는 ‘실족사’라는 단어만 맴돌았습니다. ‘함수 갑판에서 짧은 내 인생을 끝내는구나.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 갑자기 ‘함교’가 떠올랐습니다. 함교는 당직자가 있어 외부 갑판을 볼 수 있으니까 함교에 나를 알리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거친 파도가 치는 함수 갑판으로 살기 위하여 최후의 전진으로 다가갔습니다. 온 몸은 파도에 젖어 물에 빠진 쥐새끼처럼, 멀리서 보면 바다에 떠돌아다니는 유령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저는 함교를 향해 소리는 내지 못한 채 힘없는 두 팔을 흐느적거리며 살려 달라는 최후의 발악을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파도를 맞으며 발악을 했지만 야간이고, 더구나 파도가 높아 앞이 보이지 않아 함교에 있는 당직자들이 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제 정말 끝이구나. 짧은 인생을 바다에 묻고 이 세상을 떠나는구나’ 하는 절망에 저는 인생의 마지막 줄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눈앞에 밝은 서광이 비추어졌습니다. 저는 천국에서 나를 환영하기 위해서 밝혀주는 서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야간에 다른 배를 검문할 때 사용하는 서치라이트였습니다. 그 순간 배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함수 갑판에 수상한 물체가 발견되었다.”

사이렌과 동시에 “충원 전투 배치”라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아! 이제 살았구나. 드디어 나를 발견 했구나.’

인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갑자기 배가 속력을 내면서 거친 파도를 헤치며 전진했습니다. 저는 순간 ‘왜? 속력을 내지. 날 구조하기 위해서 속력을 낮추고 사람들이 갑판으로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은 나오지 않고’ 하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상한 생각은 저를 절망의 늪으로 빠져 들게 했습니다. 진짜 이유는 배 앞의 수상한 물체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함수 갑판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다 그 수상한 물체가 무엇인지 잘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두리 양식장 사람들이 잠시 거주하는 가건물이었습니다. 해군은 야간에 수상한 물체가 떠다니면 간첩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다들 긴장하고 수상한 물체가 접근하면서 전 투배치를 합니다.

배가 수상한 물체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는 “상황끝 전투 배치 해제”라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방송을 듣는 순간 ‘이 상황이 끝나면 나를 알릴 순간은 없다. 난 완전히 죽는다’는 생각에 정말 쫓 먹던 힘을 다해 다시 나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서치라이트를 마지막으로 돌리는 순간 누군가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송이 나왔습니다. “함수 갑판에서 이상한 사람이 발견되었다. 총원 전투 배치” 저는 그 방송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제야 살겠구나!’ 잠시 후, 사람들이 갑판으로 나오는 걸 보고 저는 정신을 놓고 그냥 그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눈을 떠 보니 침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 몸이 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자살하려고 그런 행동을 한 줄을 알고 또 다시 갑판으로 나갈 것 같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들고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다들 날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죽으려고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해?” 하더군요.

그 날 이후, 날씨가 나쁜 날에는 항상 배에서 방송으로 날 찾고, 모든 사람들은 나의 행동에 주목하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 사건 이후 나는 가두리 양식장에 있는 가건물만 보면 ‘나의 생명의 은인이다’ 속으로 생각하면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지금도 파도에 적응하지 못해 물위에 떠다니는 배를 피해 파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깊은 바닷속을 다니는 잠수함을 타고 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첫 해군생활을 험난하게 해서 그런지 지금은 어떤 임무를 맡아도 잘해 낼 자신이 있는 멋진 바다의 사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먼 바다에서 조국 해양을 지키고 있는 해군이 있으니 여러분은 안심하시고 생활하셔도 됩니다. ♥



나를 좋아했다는 킹카



● 글_김미영 | 전북 익산시 영등동

초등학교 때, 저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반에서 반장과 부반장을 도맡아했습니다. 그런데 제 바로 뒷자리에 오동섭이란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때는 어려서 그런지 얼굴이 잘 생긴 건지 못 생긴 건지 잘 몰랐습니다. 제 눈에는 공부를 잘하면 멋있어 보였고, 공부를 못 하면 그냥 별 볼일 없는 아이였거든요. 동섭이는 공부를 못 하는 아이였고요.

그런데 동섭이는 저에게 무척 잘해주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안 주고 혼자 먹는 ‘쫄득이’도 유독 저에게만 주었습니다. 수업시간에 뒤에서 콧속 찢러 돌아보면 쫄득이를 건네주곤 했지요. 저는 그 쫄득이를 받아먹으면서도 틈만 나면 동섭이를 놀렸습니다. 이름이 오동섭이기 때문에 주로 ‘오동얌 한 잎 두 잎...’ 하며 놀렸고, 제가 노래를 부르면 친구들도 뒤따라 부르기 시작하며 동섭이를 놀렸습니다.

동섭이는 그 노래를 정말 싫어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 바로 주먹을 날렸는데, 그 노래를 먼저 시작한 나는 절대로 미워하지도 않았고, 함부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그 노래를 부르면 실실 웃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시험시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험을 보는 날 아침이면 동섭이는 저에게 뇌물공세를 펼쳤습니다. 새로 산 연필도 주고, 지우개도 주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이따가 시험 볼 때 좀 알려달라는 무언의 메시지였지요. 역시나 시험시간이 되고 정적이 흐르면 뒤에서 찢러댔

습니다. 반응이 없으면 계속 찢러댔지요. 할 수 없이 손을 뒤로 내밀면 동섭이는 꼭 지우개를 제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지우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3번 답이 뭐냐?’

그토록 애타게 원하는 답 하나 좀 알려주면 어때서 저는 애타는 동섭이의 마음을 모른 채했지요. 그러면 동섭이는 계속해서 답을 적은 지우개를 돌려달라는 신호로 뒤를 찢러댔고, 그럼 저는 지우개를 다시 건네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었지요.

‘너, 선생님한테 확 이른다.’

그러면 동섭이는 체념한 듯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단지 들려오는 건 한숨 소리뿐. 시험시간이 끝나고 나면 좀 불쌍한 생각이 들곤 했지만 웬지 알려주지 싫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 뒤로 동섭이는 저에게 간간히 선물을 주었습니다. 예쁜 머리핀이며, 머리끈이며….

저는 그 많은 걸 받아 챙기면서도 찬바람만 휙휙 날리며 대했지요. 동섭이는 뇌물이 좀 약하다 생각했는지 다시 시험을 치르는 날이 되자 저에게 더 큰 선물을 내놓더군요. 그건 바로 제가 너무나 갖고 싶어하던 자석필통이었습니다.

“너, 이거 나 줘도 돼? 진짜 나누는 거야? 엄마한테 혼나면 어쩌려고?”

“아냐. 엄마한테는 잃어버렸다고 하면 되거든. 걱정하지마.”

그날 자석필통을 건네받고 부담을 느낀 마음으로 시험을 보는 시간. 역시나 뒤에서 신호가 오더군요. 뒤로 손을 내밀어 동섭이가 쥐어준 지우개를 받았더니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1번에서 5번까지 답이 뭐야?’ 이번에는 한 개가 아닌 다섯 개였습니다. 본인도 자석필통의 가격이 있으니, 그 정도는 물어봐도 된다고 생각했나봅니다. 자석필통을 바라보며 잠시 고민을 하던 저는 1번에서 5번까지 답을 적어서 뒤로 건네주었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 동섭이가 입이 귀에 걸려 어찌나 좋아하던지요.

그렇게 내 비위를 맞추며 지냈던 동섭이를 다시 본 건 제가 서른 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친구의 결혼식에 갔다가 거기서 그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를 본 순간 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 아이가 저렇게 멋있었던가? 180센티미터쯤 되어 보이는 키에 정우성 뽀치는 얼굴. 그래 맞아.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저 아이 얼굴이 정말 잘생겼어. 순간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더군요. 어딜 봐도 별 볼일 없고 촌스러운 내 모습.

반갑게 인사를 하고 여자친구 있냐고 슬쩍 물어봤더니 없다고 하더군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반갑게 들렸는지.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와 나랑 연결될 일은 없었지요. 저는 이미 결혼한 몸이거든요. 설령 결혼을 안 했다 해도 누가 봐도 그 애는 나랑은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나 사실 그때 너 좋아했다. 내가 너한테 잘해줬는데…”

“그래? 난 시험 볼 때 답 알려달라고 그런 줄만 알았지.”

“아냐. 나 그때 너 좋아했어. 그때는 세상에서 네가 가장 예쁜 줄 알았나니까. 집에 가서도 매일 네 얘기만 해서 우리 가족들이 네 이름까지 다 알았어. 그런데 너는 그때 나 엄청 싫어했잖아. 그치? 음. 그때는 그래도 너 참 귀엽고 예뻐했는데, 지금은 많이 변했네. 줌…”

말꼬리를 흐리며 나를 측은한 듯 바라보더군요. 지금은 ‘아니올시다!’ 라는 이야기겠지요?

사람일은 모른다더니 상황이 이렇게 역전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완전 킹카로 나타난 동섭이. 그리고 잠시 후 헬멧을 머리에 쓰고 부릉부릉 멋진 오토바이를 타고 영화처럼 사라지더군요. 물론 그걸로 끝이었지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 좀 더 잘해줄 걸 그랬습니다. 그래도 누가 봐도 멋진 이런 킹카의 첫사랑이 바로 저였다니! 기분 설레는 일이지는 하네요. 지금은 많이 변했다는 말에 가슴 한구석이 씁쓸하기는 하지만요. ♥

핀수 같은 아버지

아들은 초등학교 1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겨울방학을 앞두고 반에서 장기자랑을 한다며 엄마들 몇 명이 모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줄 선물이나 간식을 준비하는데, 풍선장식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아내는 교실을 풍선으로 장식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날따라 야근을 한 아내는 아이들의 늦은 저녁을 차려주고는 풍선장식을 파는 가게로 향했지요. 비슷한 시간에 일이 끝난 저는 곧바로 아내를 만나러 풍선가게로 갔습니다. 집꾼을 자청한 것이지요. 아내와 장식에 필요한 풍선 몇 가지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이 엉망이더군요. 아내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풍선을 꺼내놓고 갔는데, 아이들이 탕탱볼·강아지·칼 등을 만들어 거실 가득 늘어놓았더군요. 초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딸은 제 엄마에게 배워 간단한 건 제법 만듭니다.

사은 물건을 내려놓자마자 아들과 한바탕 칼싸움을 했습니다. 제가 긴 팔을 이용해 아들의 머리를 공격했더니, 지고는 못사는 아들이 안 되겠단지 풍선칼을 하나 더 만들어 와서는 쌍칼을 가지고 덤벼들더군요.

“앗, 앓, 앓. 정의의 칼을 받아라.”

“으악!”

한참 이어지던 칼싸움은 제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고 난 뒤에야 끝났습니다. 싸움에서 이긴 아들은 기고만장해 탕탱볼로 승전고를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명중아! 내일 장기자랑은 뭐할 거야?”

“글쎄요?”

아들이 어깨를 으쓱합니다. 풍선에 정신이 팔린 아들은 장기자랑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목도리도마뱀 춤 추는 건 어때?”

“그래, 그게 좋겠다.”

아내와 딸이 박수를 치며 좋아합니다.

“싫어요. 창피해요.”

‘뭐, 창피해? 이 녀석 이?’ 사실 아들이 그런 데에는 다 사연이 있습니다.

아들이 유치원 졸업반 때, 유치원에서 근처 문화체육관을 빌려 재롱잔치를 했습니다. 피켓을 잘 만들어오면 상을 준다고 하여 편집회사에 다니는 특권(?)으로 아이의 사진을 넣고 컬러로 두 개나 만들었습니다. 퇴근해서 가족들 앞에 ‘짠’ 하며 만들어진 피켓을 자랑하긴 했는데, 뭔가 미묘하더군요. 순간 떠오른 것이 <동물의 왕국> 시그널 음악과 함께 나오는 ‘목도리도마뱀’의 뛰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피켓을 귀에 대고 목도리도마뱀의 흉내를 내며 “우~ 와~” 하며 경중경중 뛰었습니다. 우스꽝스러운 제 모습에 아내, 딸, 아들이 뒤집어졌습니다. 저는 몇 번 더 목도리도마뱀 춤을 추고서야 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재롱잔치가 열렸고, 저는 아들이 나올 때마다 피켓을 들고 열심히 응원을 했습니다. 재롱잔치가 거의 끝나갈 무렵, 사회자가 피켓을 잘 만들어진 부모들을 무대로 불러올렸습니다. 그러더니 원더걸스의 <TELL ME> 음악에 맞춰 춤을 추라고 하더군요. 몸치인 저는 열심히 피켓만 흔들었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TELL ME>춤을 따라 추던 딸이 답답했는지 무대로 뛰어올라와 음악에 맞춰 춤을 쳤습니다. 평소에는 암전하던 딸의 행동에 깜짝 놀랐습니다. 소극적인 딸이 답답할 때가 많았는데, 안에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더군요.

사회자는 10명만 남기고 무대에서 내려보냈습니다. 저는 딸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지요. 이번에는 사회자가 한 사람씩 춤을 추라고 하더군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예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전날 가족들 앞에서 선보인 '목도리도마뱀 춤'을 했습니다. 장내가 웃음바다로 변했습니다. 자식의 일이 아니었다면 제 삶에서 꿈도 꾸지 못할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창피하다고? 아버지는 창피를 무릅쓰고 춤을 쳤는데... 저보다 아내와 딸이 더 흥분하더군요.

"아버지는 너를 위해 그랬는데, 너는 그게 창피했어?"

"명중! 목도리도마뱀춤 춰봐. 재미있잖아."

아들은 결국 창피하다며 태권도 발차기를 하겠다고군요. 태권도는 다른 친구들도 해 재미없다고 해도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지요. 그럴 때면 제 어릴 적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내는 새벽 5시에 일어나 2시간 만에 교실에 설치할 풍선장식을 만들었습니다. 풍선 부는 소리에 딸도 일찍 일어났지만 아들은 세상모르고 자고 있더군요. 참 마음 편한 아들입니다. 아내와 저는 준비한 풍선을 옮겨 교실을 장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딸도 제 엄마를 도왔습니다. 셋이 교실을 장식하니 한 시간 만에 끝나더군요. 사실 저는 심부름만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잠시 후, 엄마들 몇 분이 오시더군요. 참 대단들 합니다. 남편 출근과 아이들 등교 준비를 해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아이들을 위해 서려면 무엇이든 하는 게 요즘 부모란 생각이 들더군요.

아직도 쿨쿨 자고 있는 아들을 깨우러 가는 길. 엄마가 설치한 풍선장식을 보며 놀라는, 친구들에게 우쭐해하는, 태권도 발차기를 하는 아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얼굴에선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마주오던 사람이 나를 쓱 쳐다보더니 '왜 혼자 웃고 난리야' 하는 표정으로 지나갑니다. 자식 앞에서 참 '푼수 같은 아버지'입니다. ♥

● 김정수 씨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남매를 둔 아버지로, 아이들과의 이야기를 글로 써 매체에 기고하고 있는 시인이다. 시집으로 《사람 속의 사람》이 있으며, 책 만드는 것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조금은 넓은 아버지다.

아이들은 정말 자상한 아버지를 좋아할까?

근년에 사귀 동갑내기 친구와 소주 한 잔 나누며 담소하고 있을 때였다. 테이블 맞은편에서 베레모를 멋지게 눌러쓴 십대가 싱글싱글 웃으며 다가왔다. 제임스 딘처럼 미소가 멋진 그 젊은이는 내게 먼저 눈인사를 건넸다.

'누구지...?'

친구는 이야기에 열중하느라 등 뒤에 누군가 다가와 서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젊은이는 내 친구의 뒤통수를 내려다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뭐야...?'

친구가 뒷덜미의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젊은이가 양팔로 친구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며 말했다.

"아빠, 사랑해."

"어! 성민이구나. 허허허."

친구는 멧쩍은 너털웃음을 터뜨리더니, 청년을 내게 소개했다.

"둘째 놈이야. 자네 고3 큰딸하고 동갑이지."

스무 살이 다 된 청년이 사람들 앞에서 아빠를 끌어안으며 '사랑해'라고 말하다니! 이렇게 편안해 보이는 부자(父子)는 처음 보았다.

"그래 성민 군, 수능 성적은 잘 나왔는가?"



“아, 네. 제 능력만큼만 나왔어요. 하하.”

대답이 참 명랑하고 씩씩했다.

“재 담임선생님이 그러시는데, J전문대에 원서를 내면 될 것 같대. 참 잘 됐지. 집에서 멀지도 않고 말이야. 허허.”

다른 아버지 같았으면 4년제 대학에 갈 성적이 안 된다고 탓했을 테지만, 성민이 아버지는 개의치 않았다. 인터넷 옷가게를 하겠다며 다니던 대학에 휴학계를 낸 큰아들의 경우에도 선선하게 “그렇게 해보라”고 허락했던 이 친구. 자신의 능력껏 열심히 사는 아들을 격려할 뿐이다. 성민이의 밝은 성격은 부드러운 봄날 햇빛 같은 아버지를 닮아 있다.

아이들은 어떤 아버지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일까? 어머니들과 상담할 때 흔히 이런 질문을 받는다.

“우리 남편은 저나 아이에게나 자상한 편인데, 우리 애는 정작 아버지를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의 키가 어느 날 훌쩍 크는 것처럼, 아이들의 정신 연령도 급성장하는 시기가 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증언에 따르면, 4~6학년 아이들은 6개월이 다르게 변모한다. 중·고생이 되면서는 부모를 포함, 기성세대에 대한 비판의식이 날로 커가고, 심리적 독립 욕구도 한층 강해진다. 그런데 자녀와 대화할 시간이 부족한 아버지들은 자녀의 이 같은 변화에 둔감하다. 그래서 자녀에게 자상하게 군다는 것이 오히려 잔소리하고 간섭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늘 어린아이인 줄로만 알아요. 사소한 것도 일일이 간섭하시죠. 짜증나요.”

자녀들은 자상한 아버지보다 ‘내 의견을 존중해주는 아버지’를 더 좋아한다. 2,000여 명의 중·고생들을 설문한 결과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저 잘했다고 등을 두드려 주는 아버지, 나의 선택을 존중하고 믿어주는 아버지를 사랑한다. 그런 아버지에게서 힘을 얻는다.

얼마 전, 귀를 뚫겠다는 고등학생 딸과 두 시간 정도 토론을 한 적이 있

었다. 나는 피어싱을 했을 때 따를 수 있는 다양한 불이익에 대해서 설명했다. 딸도 나름대로 자기주장을 펼쳤지만, 결국은 아빠의 의견에 상당 부분 공감했다. 토론에서 이겼다고 생각한 나는 흡족했다. 그러나 다음 날, 딸은 귓바퀴에 두 군데나 구멍을 내고 집에 돌아왔다. 피어싱 때문에 생길 수도 있는 불이익은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피어싱한 모습을 보고 나는 허허 웃었다. 딸도 히히 웃었다. 스스로 선택한 것이니 스스로 책임도 질 것이다. 감당해야 할 책임이 녹록하지 않음을 경험하게도 될 것이다. 다음번에는 더욱 신중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고, 그런 과정을 거듭하면서 지혜도 성장할 것이다.

보수적인 아버지들은 자녀와 친구처럼 지내는 나의 양육 태도를 회의적인 시각으로 본다.

“철모르는 녀석이 공부하는 안 하고 멋 부리고 놀기만 하는데, 어찌 그냥 두고 볼 니까? 대학에 합격하면 그때 가서 최대한 자기 선택을 존중해 줄 겁니다.”

저수지가 가득 차오를 때까지 물을 막아 놓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독을 개방하면 어떻게 될까? 자녀의 자기 선택 및 결정권은 어릴 때부터 단계적으로 허용되어 십대 후반에 이르면 거의 자녀에게 이양된 상태여야 한다. 특히 진학·진로 선택의 기로에 선 경우에는 최대한 자녀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주어야 한다. 원치 않는 진로를 자녀에게 강요했을 때, 부모와 자녀 사이가 첨예한 대립으로 치닫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이가 제 생각을 접고 부모의 뜻에 따르면 당장은 서운할지 몰라도 훗날 고마워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는 부모의 낭만에 불과하다.

자녀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아버지라면 다음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진로 문제 때문에 아버지와 크게 부딪쳤다. 아버지는 내 꿈을 무시했고, 내가 살아 있다는 사실에 회의를 느낄 만한 말들을 많이 했다. 그 말들은 지금까지 큰 상처로 남아 있다. 결국 나는 꿈을 접었고, 그 때 이후로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여고 3학년) ♥

● 신구진 씨는 ‘자기 존중감을 살리는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성장을 돕고 싶어하는 서울 경성고등학교 과학, 상담 교사, 상담 경험을 <기쁘다고 실망하는 아이는 없다> 등의 책으로 엮었다.



내 친구 중에 “자기 남편이 세상에서 최고의 남자”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 그 친구의 남편 이야기는 30대부터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감동이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 진가가 높아간다.

“며칠 전, 제육볶음을 했어. 남편이 먹다가 ‘좀 덜 익은 거 같아’ 그러는 거야. 왜, 돼지고기는 약간 탄 듯 바짝 구워져야 맛있잖아. 먹어 보니 덜 익은 건 아니었어. 그런데 내가 그날따라 너무 지치고 힘들었어. 그걸 다시 프라이팬에 볶고 어찌고 하면 시간도 걸릴 테고. ‘그러면 익은 걸로만 골라먹어요’ 했지. 그랬더니 남편이 ‘네, 알았습니다’ 하는 거야. 좀 미안하더라. 그래서 ‘여보, 내가 친절하니까 골라 먹으라고 하지, 어떤 여자들은 괜찮으니 그냥 먹으라고 한단 말야’ 했더니 우리 남편 뭐래는 줄 아니? ‘네, 감사합니다’ 하더라.”

친구들의 입이 벌어져 다물어질 줄을 모른다. 짜증을 내거나 잔소리를 하거나 심한 경우 화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이다. 그런데 이렇게 아내의 힘든 상황을 인정하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니, 사람인가? 천사인

가(참고로 그 친구 남편은 이른바 ‘잘 나가는’ 전문의다).

부부살이는 사소함의 연속이다. 일상의 아주 작은 일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한다.

어떤 집은 냉장고 손잡이가 화근이였다. 그 집 냉장고, 오래되다 보니 손잡이가 덜렁거렸다. 그날은 밥을 먹다가 김치를 더 꺼내려 냉장고를 여는 순간 손잡이가 그만 떨어져버리고 말았다. 떨어진 손잡이가 밥상을 탁 치는 순간 남편이 화를 버럭 냈다.

“아, 거 조심 좀 하지. 당신은 평소에도 너무 덜렁거려.”

그 아내는 기분이 너무 상했다. 아무 말 없이 김치만 꺼내놓고 냉장고 손잡이를 한쪽에 치운 채 먹던 밥을 두고 밖으로 나와 버렸다. 눈물이 흘렀다. 그 낫 냉장고 손잡이가 뭐라고,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놀란 사람에게 위로는커녕 아이들 앞에서 면박을 주다니, 그럼 냉장고 새로 사게 돈을 많이 벌어들였는가, 평소 의종다고 자부했던 부부살이였던건만 이 한마디에 아내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회의가 들기까

지 했다.

한참 후, 집에 들어가니 남편이 손잡이를 강력테이프로 꼼꼼 묶어놓고 설거지까지 싹 해놓았다. 아내의 눈치를 살피며 미안해하는지라 그냥 풀린 척 넘어갔지만 앙금이 남았다. ‘저 사람이 어느 순간 나를 비난할지 모른다’ 남편이 편하지 않고 불편한 존재가 된 것이다.

어떤 내내는 어쩌나 음식을 잘 흘리는지 옷을 보면 뭘 먹었는지 알 수 있다. 오죽하면 별명이 ‘옷에다가 메뉴’일까. 아내가 흘리면 남편은 가만히 냅킨을 집어준다. 아내가 민망해 하면 남편은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한다. “한두 번이 아니잖아. 정말 나는 왜 그럴까?” 아내가 자책하면 남편은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는 거야” 하며 위로한다. 남편이 이러니 아내도 남편의 단점을 눈감아주게 된다. 나중에 남편이 늙어서 이처럼 상대를 마음 편하게 해주면 상대도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사람관계의 원리다.

부부가 살면서 제일 힘든 일이 무엇일까. 상대가 빠치는 것이라고 한다. 부

부처럼 눈치가 많이 보이는 관계도 없을 것이다. 괜찮다고 하는데 정말 괜찮은 걸까?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도 되나? 내가 이런 말 하면 화를 내지는 않을까? 이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늘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편치 못하다.

젊어 한때는 상대의 외모나 능력에 쏠릴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결국 부부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서로를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것이다. 친구 같은 부부가 행복하다는 이유도 그것이다. 하루이틀 살 것도 아니고 한 공간에서 일상생활을 같이 하는 부부로서는 서로를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자, 골라보시라. 아내가 설거지를 쌓아놓고 한숨을 쉰다. 남편으로서 당신은 뭐라고 말할 것인가?

❶ 피곤한데 나중에 해.

❷ 잘한다. 여편네가 설거지 쌓아놓고 남편이 가족동반 약속을 한 날, 다른 일이 생겼다. 아내로서 당신은 뭐라고 할까?

❸ 놀려가서 마음 불편할 것 같으면

그쪽 일을 해. 다시 날 잡자.



② 나는 몰라. 당신이 알아서 해.

말하는 사람은 별 생각 없이 가볍게 던진 것이라 해도 듣는 사람에게는 깊은 상처가 되고 앙금으로 남는다. 살붙이고 마음 붙이고 사는 부부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선물도 좋고, 꽃다발도 좋지만 돈 안 들이고 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최고가 될 수 있는 선물은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다. 부부살이의 새해 목표, ‘내 마음을 녹여주마’로 삼으면 어떨까. ♥

● 오숙희 씨는 개인 상담소 ‘해심터’를 운영하며 방송과 강연, 집필 등 대중적인 여성 학자로 활동중이다. 부부 사이의 갈등과 화해를 통해서 어떤 결혼이, 어떤 만남이 더 성숙한 결혼생활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추억을 팔다



“너는 예전에 함께 있던 동료를 닮았어.”

MBC <종합병원 2>의 전문의 도훈(이재룡)은 레지던트 하윤(김정은)에게 말한다. 도훈이 하윤을 통해 떠올리는 사람은 15년 전 그와 함께 의료 수업을 받던 정화(신은경)다. 정화는 <종합병원 2>에 출연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종합병원 2>는 정화를 통해 내용 곳곳에 <종합병원> 시절의 추억을 되살린다. 도훈이 정화를 떠올릴 때마다 화면에는 이젠 화질마저 흐릿한 15년 전 <종합병원>의 영상이 나오고, 도훈은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화를 마음에 담고 있다. 15년이란 시간에도 불구하고 전작의 추억을 되살리려 노력하는 <종합병원 2>은 요즘 대중문화계의 ‘추억 마케팅’을 잘 보여준다.

요즘 대중문화계는 과거의 인기 음악과 영화, 드라마에 대한 추억들을 되살리는 작품들로 가득하다. 아버의 노래만으로 만든 뮤지컬 영화 <맘마미아>는 올해 500만 가까운 관객을 동원, 외화 중 최고의 흥행을 기록했고, KBS <해피선데이>의 ‘불후의 명곡’에는 패티김·김창완 등 추억의 톱스타들이 끊임없이 출연한다.

영화 <진짜진짜 좋아해>를 원작으로 한 뮤지컬 <진짜진짜 좋아해> 역시 인기다. 추억 마케팅은 과거 히트한 대중문화 상품에 대한 그리움에서 시작된다. 아버의 노래를 부르며 춤추던 고고족들도, <종합병원>의 신은경을 보며 열광하던 X세대도 이미 중장년에 접어들었고, 그들은 되돌아온 <맘마미아>나 <종합병원 2>를 통해 자신이 젊은 시절 좋아했던 것들에 대한 추억을 되새김질한다. <종합병원 2>에는 얼마 전부터 <종합



병원)에서 후배 레지던트들을 혹독하게 다루는 ‘독사’ 캐릭터로 유명했던 오옥철이 전문의로 돌아와 옛 팬들의 흥미를 자아내고 있다.

그러나 추억 마케팅을 이용한 작품들의 매력은 단순한 추억의 재생에 있지 않다. <맘마미아>는 아버의 노래를 바탕으로 하지만 아버가 유행하던 시절로 돌아가는 대신 아버 시절 음악을 들었던 여성이 딸을 시집보내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고, <종합병원 2>에서 ‘원조 독사’ 오옥철은 ‘후배 독사’ 류승수를 구박한다. 추억 마케팅이 빛을 발하는 순간은 단지 과거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추억을 가진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도 그 추억을 간직하며 빛나게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줄 때다.

특히 추억마케팅을 통해 중장년층이 대중문화계의 전면에 나설 수 있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맘마미아>는 메릴스트립에게 다시 한번 최고의 연예인이라는 찬사를 안겨주었고, ‘불후의 명곡’의 주인공들은 그날만큼은 프로그램의 중심에 선다.

<맘마미아>의 관객 중 상당수가 어머니와 딸이었다는 사실은 추억의 힘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추억을 통해 부모는 자식과 소통할 곳을 찾고, 이를 통해 자신이 힘차게 살아가고 있음을 증명한다. 그래서 추억 마케팅은 오직 시간만이 줄 수 있는 어른들을 위한 선물이다. 시간이 흘러 팔팔하던 몸은 나이 들고, 거리에는 온통 젊은이들로 넘쳐나는 것 같다. 하지만 시간 속에 차곡차곡 쌓인 추억들은 어른들에게 끊임없이 과거의 나를 불러내고, 그 추억을 쌓은 현재의 내가 얼마나 빛나는 존재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세월은 흘렀고, 사랑했던 연인은 곁을 떠났다. 이제는 그를 닮은 젊은이들이 내 눈앞에 있다. 하지만 그 추억을 간직하고 사는 나는 과거와 현재를 모두 즐기며 산다. 그것이야말로 추억의, 추억마케팅의 힘 아닐까. ♥



여성시대와 함께하는 십년세월

이렇게 애청자분들께 새해인사를 올린 게 열 번째다. 온 세상이 새천년증후군을 앓는 것처럼 갖가지 놀라운 이벤트로 가득 하더니, 1년만 더 살면 새천년 들어선 지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지난다. 유수와도 같은 세월. 올 6월이면

〈여성시대〉 썰집이썰마로 들어앉아 딱딱 채운 만 10년이다.

〈여성시대〉 10년은 내게 대단한 공부의 세월이었다. 음악프로를 맡아 청소년 대상으로 관제엽서 신청곡을 받던 70년대와 더불어 내 20대도 지나가고, 30대 중반까지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이 내 시간대였다.

결혼해서 떠났다가 돌아오니 90년대 중반, 진행자의 말에 금세 팩스로 반응하는 게 놀랍더니, 이젠 본격적인 인터넷 소통의 시대라 그런 변화도 세월 따라 놀라웠다. 타 방송에서의 세월은 그랬고, MBC 라디오 〈여성시대〉를 맡으면서 나의 인생도 달라졌다. 인생이라는 큰 배움터에서 오십 고개를 넘으면서 더듬더듬 새롭게 공부의 맛을 알아간달까? 뒤늦은 공부의 맛이구나!

삶의 문리가 트여 말귀 알아듣기도 쉽고, 머리로만 깨던 공부라 가슴으로 받아들여지니 속사포처럼 압기는 안 되어도 이해가 제대로 되며 얼굴 생김새가 다르듯, 사람사람 집집이 다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웠다. 더불어 힘겹게 넘던 내 갱년기 마흔여덟의 언덕을 더 더욱 험악하게 만들기도 했다.

내 마음속의 무언가로 너무 벅차고 힘들어 하기도 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나? 사연 하나 읽혀지는 것이 그이의 삶에 실제적으로 무슨 보탬이 될까? 소개되는 사연을 그 맥내 남편이 듣고 개과천선을 해서 다시는 때리지 않게 될까? 일자리는 구해질까? 건강을 되찾을 것인가? 오해 풀고 미움을 털게 될까? 대체 무슨 도움이 될까? 싶어 엄청 가라앉아 갱년기 우울증(?)을 앓았다. 아무 의욕도 없고, 한강 둔치에 나가 앉아 흐르는 강물을 하염없이 바라보던 아침시간이 꽤 여러 달 계속 되기도 했다. 그냥 물 흐르듯 흘러서 가면 끝이 있을까?

세월 따라 매 맞는 아내는 더욱더 골병이 들고 소통 불가능의 답장은 더 높아가고, 사는 건 더 고단해지고, 마음의 빗장은 죽음 앞에서나 각자의 가슴을 쥐어뜯으면서야 회한을 낫길 뿐.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나이 들어가고 버릇처럼 모든 그늘은 그러려니 하며 어둡고 춥게 늙어가는 걸까? 한 5년을 우울의 늪에서 버둥거렸다.

숙제를 못해 끄꿍 앓던 어느 날 나는 알았다. 아하~ 그 사람 당사자에게 어떤 도움을 준다기보다 차마 그렇게 편지조차 쓸 수 없는 누군가가 자기를 보는 객관적인 시선을 갖게 되면 마음도 달라지면서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걸 말이다. 그러면서 안 보이는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서로에게 어깨동무를 해주고 빙 둘러 든든한 울타리가 된다는 것도.

지난해 말 국회 ‘대중문화&미디어 연구회’ 라는 곳에서 마련한 라디오부문상을 〈여성시대〉가 땀. 강석우 씨와 내가 한 인사는 말은 달랐어도 한마음이었다. 이 상은 가슴으로 사연을 써 보내는 〈여성시대〉 모든 애청자분들께 드린다. 우리 두 사람보다 거쳐 간 모든 PD와 17년간랑 한자리를 지키고 있는 작가에게 공을 돌린다. 그리고 이 자리의 국회의원 여러분! 민심이 궁금하시면 단연코 〈여성시대〉 들으세요! 새해에도 건달만한 넉넉한 마음으로 많이 웃으면서 고단하지만 우리 살아 내요. ♥



나에게 2009년은

1959년은 내가 세 살 때니까 거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거의가 아니라 '전혀'라고 하는 게 맞겠다.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비포장길을 울면서 달리던 딱 '한 컷의 기억'이 있긴 한데, 그게 세 살인지 네 살인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다.

1969년은 초등학교 6학년이었다. 정말로 별 볼일 없던 시절의 한 초등학교 녀석의 존재는 어디에도 없었고, 단지 교회성가대원으로 맹활약(?)하던 몇 장면이 기억이 난다. 극동방송에 출연했던 일이 기억나는데, 퇴계로5가에 있던 교회에서 지금도 홍대 근처에 있는 방송국으로 가면서 멀미약을 먹었다. 조그만 라디오스튜디오에서 성가 몇 곡 불렀는데, 엄청 떨었던 것 같다.

1979년은 내게 있어 의미가 있다. 1978년에 배우로 뽑힌 후, 명동 코리아극장에서 데뷔작 <여수>가 개봉됐고, 태어나 처음으로 외국에 나가기도 했다. 아시아영화제에 참석했는데, 그때 싱가포르에서 만났던 <사랑의 스잔나>의 아비(阿B)를 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30년 만인 2006년인가, 서울서 만났는데 아비의 얼굴을 보며 흘러간 세월이 느껴졌다. 그리고 나의 스승 유현목 감독님의 영화 <장마>에 출연했다. 경북 월성군 안강읍에서 주로 찍었는데, 사골에 한 보름 처박혀 있는 게 못 견디게 힘들었던 기억이 난다. 지

루하고 심심하고 따분하고. 그때 같이 출연했던 선우용녀 선배님은 30대 중반이었는데, 요즘 <너는 내 운명>에 같이 출연하고 있다. 이제 환갑이 지나셨단다.

1989년 그 해 겨울 아내와 처음 만났다. <겨울 나그네>가 개봉된 후였고, MBC 조선왕조 5백년 <인현왕후>가 1988년이고, 그때 찍은 김수현 작 <상처>가 개봉을 앞둔 시기였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짝을 만나 결혼하는 게 아닐까? 그때 내 나이 33세, 아내를 처음 만나던 날은 하나하나 그대로 다 기억이 난다. 그 카페, 그 여주인, 같이 있던 후배, 아내의 친구들, 상황들. 운명적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아내와의 첫 만남. 먼 얘기같이 아득하기도 하고, 엇그제의 일같이 너무 생생하기도 하다. 처음 만난 그날, 카페에서 나와 길거리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던 우리들의 모습도, 내 마음의 변화도 그대로 생각이 난다.

1999년은 2000년이 온다고 떠들썩했던 해다. 즈문등이가 태어난다고 방송마다, 신문마다 새로운 천 년을 준비하느라 바빴던 것 같은데 그 해 나에게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다. 기억이 없다는 거다. 드라마 출연도 했을 텐데... 아! 이렇게도 아무 기억이 안 난단 말인가? MBC의 <이중마>는 2000년이니까 그 일 년 전에는 무었 했나? 한 해 전인 1998년은 IMF 때문에 고생들 했을 것 같은데... 2000년이 되었다고 흥분하던 목소리가 높은 게 얼마 전 일인 듯한데 벌써 9년이 흘렀다. 2002한일 월드컵축구가 몇 년 안 남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미 끝이 났고, 그 다음 월드컵축구도 끝났고, 내년이면 4년 만에 오는 월드컵축구가 또 대기하고 있다.

2029년쯤 나는 2009년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 '너는 내 운명'의 해로 기억할까? '여성시대'로 기억할까? 경제위기의 해로 기억할지도 모르겠다. 2009년에 모두들 안전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 사실 20년쯤 뒤인 2029년에 오늘을 기억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일은 아니다. 단지 기억력일 뿐일지도 모른다. 올 한 해 실제로 바쁘고, 즐거웠고, 행복했다는 게 중요하다. 그건 기억하든 말든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다. 2009년 세월, 쉽지 않다. 우선 올 한 해 모두 모두가정이 안전하고 행복하길 바란다. 20년이 지난 2029년에 내가 기억하든 말든... ♥



그 해 겨울

2005년 1월은 내 생애 최악의 겨울이었다. 이미 학교는 졸업했지만, 오르는 곳이 없었다. 봄이 올 때까지 백수로 지내야 할 판이었다. 소속이 없으면 경제력이라도 갖추어야 했다. “절대로 다시는 학생을 가르치는 일은 하지 않겠다”던 생각을 바꿔 겨울바람을 맞으며 소개받은 학생이 사는 동소문동에 있는 아파트를 찾아나섰다.

마지막해 다시 하게 된 과외선생 노릇. 그 해 겨울, 내가 가르쳤던 그 아이는 중학교 3학년이었다. 당시 외고입시에서 낙방하고 엄마의 눈치를 보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 생각했던 것처럼 일이 잘 되지 않아 삶의 의욕이 없기는 나나 그 아이나 마찬가지였다. 그 와중에도 그 아이는 종종 “대학을 졸업했는데, 왜 취직을 하지 않으냐”고 물어내 속을 뒤집어 놓았다.

그때는 사는 게 힘들었다. 이유는 많았다. 두 번 다시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장담했는데, 열 살이나 어린 녀석을 붙잡고 가르쳐야 했다. 하고 싶고, 잘할 자신도 있는 일에 대해서는, 세상이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밥벌이를 위해 수원에서 강북까지 왕복 세 시간을 지하철 안에서 보내고 나면 집에 가선 녹초가 되었다. 생각하던 스물다섯 살의 삶은 이런 게 아니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한 달을 그렇게 다니고 과외비를 받았다. 마지막 아르바이트를 그만 둔 지 넉 달 만이었다.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최소한의 밥벌이를 했다고 생각하니 기운이 났다. ‘그래도 아직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대가로 이렇게 돈을 벌지 않는가.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자신감이 생겨났다.

그날, 집에 도착해 막 현관을 들어섰을 때 엄마가 말씀하셨다.

“봐라. 세상 일이 생각 같지 않지? 두 번 다시 애들 안 가르치겠다더니… 사람 일, 함부로 단정질 수 없는 거야.”

엄마는 일이 잘 되어 갈 때도 너무 앞서 나가지 않았다. 일이 되어가는 것만큼만 기뻐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자 하셨다. 반면 나는 일이 좀 잘되어간다고 싶으면 이미 마음은 저만치 앞서 가고 있었다. 아르바이트를 그만 둘 때도 ‘곧 취직이 될 테니까, 아르바이트도 이제 안녕이다!’ 하면서 앞서나갔다. 하지만 넉 달 만에 세상 일이 내 생각대로 흘러간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것이다.

이후 나는 겸손해졌다. 인생은 사고 같은 것.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 지 알 수 없고, 좋다고 마냥 좋지 않고, 나쁘다고 모두 나쁜 것은 아니다. 내 확신에 차서 다른 사람을 나무라지도, 나처럼 하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도 않게 되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이었다.

유난히 춥던 4년 전과 비교하면 2009년 1월은 내 생애 최고의 겨울이다. 하지만 장담하지 않는다. 이런 행복이 언제까지고 지속될 것이라도 기대하지 않는다. 내가 겪어보니 이렇더라고 선부르게 단정 짓지 않았다. 다만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시간이다.

누구나 저마다의 최악의 순간이 있다. 거기서 벗어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혹은 무언가를 시도해도 똑같이 흐른다. 하지만 본인이 느끼기에 뭔가를 하고 있을 때라야만, 그 시간은 의미 있게 흐를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과하며 그동안 놓치고 있던 무언가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 매일 우리가 살며 배워가는 것일 게다. ♥

추억의 음식 수제비

이달의 요리는 '단호박으로 반죽한 수제비' (2008년 12월 12일 방송)입니다. 수제비에는 추억이 여러 있습니다. 모두가 살기 어렵던 시절, 수제비는 간식이 아닌 주식이었지요. 뒤편에 따로 만들어진 아궁이에 장작불을 지피고, 숟가락이나 손으로 뚝뚝 떼어 넣고 양은술 가득 끓였습니다. 수제비가 다 되면 양은술째 가져와 가족이 둘러앉아 맛있게 먹었죠.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의 것을 먼저 푸고, 첫째부터 둘째, 셋째... 차례대로 퍼주었습니다. 어쩌다 막내를 먼저 퍼주기도 했지만 당신은 언제나 마지막으로 퍼서 상 귀퉁이에서 드셨죠. 뜨거운 수제비를 후후 불어가며 한 그릇 뚝딱 해치우면 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또 한 그릇 퍼주었죠. 두 그릇은 기본이었습니다. 밀가루로만 만든 수제비였지만 맛이 기가 막혔습니다.

이제는 추억의 음식이 되어버린 수제비! 이달에는 단호박과 감자를 넣어 만든 수제비의 맛여행과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눈 내렸던 날, 중학생인 막내딸이 수제비를 해주었습니다. 일하고 돌아오니 “엄마, 일하고 있는데 많이 추웠지? 내가 엄마를 위해서 요리를 했어” 하며 자신만만하게 내밀던 수제비. 나름 재료를 넣는다고 감자, 호박, 당근도 넣었더라고요. 반죽을 손으로 뜯어 넣는 것이 어설픈 평어리인 것도 있고, 국물도 싱거워서 결국 고추장을 풀어서 고추장수제비로 먹었지만 딸의 정성 때문인지 한 그릇 더 먹었습니다.

-전선희 님

그 옛날, 수제비는 주식이었다. 하루에 밥 한 끼를 먹으면 한 끼는 굶고, 또 한 끼는 어김없이 수제비를 해먹었다. 5남매인 우리 집은 수제비를 큰 솥에 가득 끓이는데 엄마와 내가 한동안 떠놓어야 했다.

그날도 수제비를 끓이고 있을 때 느닷없이 개구리가 나타났다. 나는 개구리를 밀었는데, 그만 수제비를 끓이던 솥에 빠지고 말았다. 솥이 작았으면 폴짝 튀어나오면 되지만 개구리는 물 속을 뱅뱅 돌다가 나오지 못했다. 얼은 국자를 넣어 찾아도 개구리는 잡히지 않았고, 결국 엄마는 나중엔 한일(一)자로 짝 벌은 개구리를 건져 내야만 했다. 그날 저녁, 아무것도 모르는 언니·오빠는 “맛있다”며 세 그릇이나 먹었고, 동생은 “엄마, 오늘 수제비 진짜 맛있네. 고기도 안 들어갔는데 어째 고깃국처럼 국물도 구수하다”고 했다. 식구들은 몰랐을 것이다. 내가 왜 그 맛있는 수제비를 마다하고 찬밥을 먹고 있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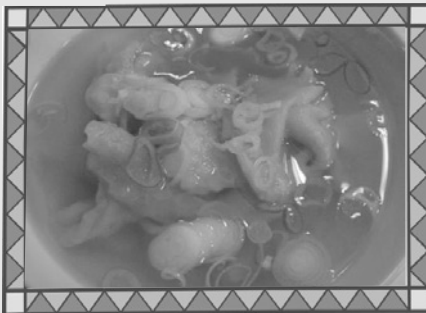
-노정옥 님

40여 년 전 초등학교 시절, 우리의 주식은 쌀이 아니고 고구마, 감자 그리고 밀가루 음식이 다였죠. 어머니께서 수제비를 끓이기 위해 열치를 넣고 끓는 물에 밀가루 반죽을 한 걸 수저로 뚝뚝 떠 넣으며 “야 이놈아, 주걱으로 빨리 저어라. 빨리 젓지 않으면 밀가루 덩어리끼리 붙어서 떡이 된다”며 호통을 치셨고, 나는 그게 먹기 싫어 “엄마는 매일 수제비만 주는 거야. 수제비 지겨워! 수제비, 안 먹을 거야” 하며 휘젓던 주걱을 팽개치고 도망갔다가 부지깽이로 얻어맞고, 그날 저녁은 톱톱 굶었다. 거기에서 아버지에게 매타작을 당한 때가 지금은 왜 그리 그리워지는지. 그때는 죽기보다 싫었던 수제비! 지금은 아내에게 부탁, 부탁해야 간신히 얻어먹을 수 있다.

-양광규 님

cooking recipe

● 레시피_우영희(요리연구가)



단호박으로
반죽한
수제비

재 료

단호박 반통(500g)

- ① 김오른 찜기에 15분간 찌서 완전히 식힌 후 밀가루 2컵과 소금 1/4작은술을 넣고 함께 반죽한다. (food processor를 사용한다. 손으로 할 경우 호박이 뜨거울 때 체에 내려 식힌 후 밀가루와 섞어 준다.

감자 2개(500g)

- ② 물에 삶아 내거나 김오른 찜기에 25분간 찌서 식힌 후 밀가루 3컵반 소금 1/4작은술을 넣고 함께 반죽한다. (단호박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 멸치 국물내기

끓는 물 10컵에 국물용 멸치 20마리 정도 넣어 3~5분 끓여 국물만 사용한다.

❖ 양념간장

간장 5큰술, 물 3큰술, 맛술 2큰술, 고춧가루 1/2큰술, 파 1대(잘게 썰어), 다진마늘 1큰술을 잘 섞어 만든다.

❖ 만들기

- ① 멸치국물에 소금으로 간한다.
- ② 단호박을 넣은 밀반죽과 감자 반죽을 한 입 크기로 손으로 뜯어 넣고 10분간 끓인다.
- ③ 완성 그릇에 담아 양념간장과 함께 낸다.

마리아의 두 손

사소페라토의 〈기도하는 동정녀 마리아〉

이렇게 고요한 그림이 있을까 싶을 정도다. 차분하다 못해 신비로운 느낌이 드는 그림이다. 사소페라토(1609~1685)의 〈기도하는 동정녀 마리아〉다.

중세 이콘이나 르네상스 시대의 성화를 보면 성모 마리아는 항상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동하고 등장했다. 예수의 어머니라는 바로 그 혈연적 관계로 권위를 인정 받는 존재였다. 그러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 마리아 혼자 등장하는 일이 잦아졌다.

이 같은 변화에는 무엇보다 종교개혁의 영향이 컸다. 유럽이 신교권과 구교권으로 나뉘면서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을 숭배하는 것을 이단시한 프로테스탄트에 대해 바로 거기서 교회의 정통성을 찾으려 한 가톨릭의 노력이 성모의 지위와 권위를 강화하는 쪽으로 흘렀던 것이다. 자연히 구교권의 화가들은 성모를 독립된 주체로 표현하기 시작했고, 예수의 어머니에서 나아가 모든 이의 어머니로 형상화하기 시작했다.

사소페라토의 성모는 독립적인 존재로서 그 이미지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 작품이다. 초월적인 듯 인간적인 듯 현재와 내세의 경계 위에 서서 켜 있는 모든 인간들을 품어 안는 따뜻한 중보자. 마치 관음상 같은 그 분위기가 우리 모두의 굳은 마음을 푸근히 녹여낼 것만 같다.

이 그림을 그린 사소페라토는 베네딕트 수도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베네딕트 수도회는 '기도하고 일하라'는 모토를 갖고 있었다. 일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소중히 여긴 수도회다. 사소페라토의 그림을 보다 보면 그 모토가 작품 속에 얼마나 철저히 관통되고 있는가를 잘알 수 있다. 그림 그리는 것이 곧 기도하

는 것이 되어버린 그림.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명상에 빠지게 하는, 글자 그대로 기도로 그린 그림인 것이다. 이 그림을 보노라면 간디의 말이 생각난다.

“내가 만일 염주를 세는 것과 물레를 돌리는 것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물레의 편에 손을 들어 그것을 나의 염주로 삼을 것이다. 이 나라에 굶주림이 있는 한.”

성과 속은 일도양단으로 자를 수 있는 게 아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게 속된 일이 될 수 있고, 속됨을 추구하는 게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바른 마음, 깨우친 마음일 것이다. 사소페라토의 〈기도하는 동정녀 마리아〉는 주제와 형식 모두에 있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게 무엇인지 선명히 가르쳐주는 그림이다. 우리도 저렇게 속세의 삶을 거룩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듯 아름다운 주제 외에, 이 그림을 보며 우리가 도상학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부분이 하나 있다. 바로 곱게 모은 마리아의 두 손이다. 초기 기독교가 전파될 무렵 유럽의 기독교도들은 이렇게 손을 모아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들은 오히려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 기도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기도 자세는 도대체 어디에 연원을 둔 것일까?

사소페라토의 마리아처럼 손을 모아 기도하는 자세가 유럽의 미술 작품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서기 1000년경부터다. 특히 13세기부터는 수많은 성자와 봉헌자들이 이렇게 손을 모아 기도하는 모습으로 표현됐다. 이 무렵부터 이런 이미지가 현저히 늘어난 데는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가 이 기도 자세를 미사의식에 포함시키도록 고무한 탓이 크다고 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자세가 종교적 요인보다는 정치·경제적 요인에 의해 만들어진 자세라는 것이다. 그 배경은 이렇다.

중세 봉건시대 영주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의식을 치를 때 신하는 자신의 두 손을 모아 영주 앞에 내밀었다. 영주는 신하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쌌다. 이것은 복종한다는 표시와 그 복종을 수용한다는 표시의 만남이었다. 중세 봉건체제의 신분들, 특히 귀족 내부에서는 상하 위계서열이 기본적으로 상호 보호와 충성의 계약 형식을 띠었고, 서구 근대 시민사회의 이념인 사회계약의 뿌리가 이미 그 안에 내포돼



*사소페라토 〈기도하는 동정녀 마리아〉 1655, 유화, 런던 내셔널 갤러리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이 자세가 왜 기독교에 의해 급속히 흡수됐는가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신약’·‘구약’이라는 성경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신과의 계약을 중시한 기독교도들은 약속의 표시로 이 자세로 신에게 순종을 맹세할 수 있었고, 이에 기초해 주어진 그의 신은 구원의 약속을 그에게 내려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